

## 남가주교협 회장에 최혁 목사, 수석부회장은 “또” 공석

제45차 정기총회 11월 3일 주안예교회에서 열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제45차 총회에서 최혁 목사(주안예교회)가 신임회장에 당선됐다. 10월 13일 공천위원회에서 수석부회장에 공천, 선출, 임명된 최 목사는 이날 총회에서 회원들의 박수로 회장에 인준 받았다. 지난 44차 총회에서 공천위원회에 수석부회장 선출에 관한 모든 권한이 위임된 상태였기에 최 목사는 약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수석 부회장 임기 후 곧장 회장에 인준됐다. 강용순 목사가 “회장 후보가 1명 이므로 인준 문제를 투표가 아닌 박수로 하자”는 의견을 냈고 이에 대해서 박세헌 목사는 반대 의견을 표했지만 결국 박 목사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박수 형식으로 최 목사의 회장 인준에 찬성했다. 이날 총회 등록 인원은 52명이었다.

최혁 목사는 “모자라고 부족한 목사에게 하나님과 선배 목사님들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죄송한 마음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짧게 소감을 전했다. 직전회장 박효우 목사는 “지난 1년간 저와 함께 수고해 주신 목사님

들과 교회들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쌀 사업에 방해가 많아 힘이 들었지만 격려를 많이 해 주셨다”고 회고했다. 또 “차기 회장 후보를 위해 기도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했으나 차선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 부족한 저를 탓해 달라. 남가주교계 연합을 위해서라면 어떤 재책도 기꺼이 달게 맞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총회에서도 지난 총회와 마찬가지로 수석부회장이 선출되지 못했다. 이로써 남가주교협은 2년째 총회에서 수석부회장이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 지난 10월 28일 수석부회장 공천을 위한 모임이 열렸으나 결국 수석부회장을 뽑지 못했으며 수석부회장 선임의 문제를 회장에게 위임하고 총회에서 추진받자는 안건이 가결됐다. 원래 총회에서 수석부회장을 선출하고, 차기 총회에서 회장으로 인준하는 정관과는 다소 어긋나는 결정이지만 사실상 현재로서는 대안이 마땅치 않다.

수석부회장으로 공천할 인물이

없는 상황에서는 회기 중에 임시총회를 열거나 지난해처럼 공천위원회에 수석부회장 선출 권한을 위임하는 등의 방법이 있지만 올해에는 회장에게 전권을 위임했다. 다소 이례적이다. 즉, 최혁 목사가 지명하는 인물이 교협의 정관이 규정하는 일정한 기준만 충족시키면 즉시, 수석 부회장에 임명되는 것이다.

이 결정을 총회원들이 가결한 후, 회의장 내에서는 “임원과 증경회장단이 수석부회장을 공천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이미 결정된 사항이었기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혁 목사의 회장 취임식은 11월 16일 오후 4시 30분 주안예교회 밸리채플(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91326)로 결정됐다. 최혁 목사는 호남신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풀러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 과정을 마쳤다. 현재는 HIS대학교에서 Ph.D. 과정 중에 있다. 사랑의빛선교교회 담임을 거쳐 현재 주안예교회를 개척해 시무하고 있다.

김준형 기자  
→ 관련기사 3면



11월 3일 주안예교회에서 열린 남가주교협 정기총회에서 최혁 목사가 회장에 인준됐다. 사진은 최혁 신임회장과 박효우 직전회장.

## 가장 효과적인 전도법은 역시 ‘관계전도’ ...美 설문조사 결과

“전도 어렵다고?” “가족이나 친구가 초대하면 47% 응하겠다”

복음전도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관계전도라는 것이 설문 조사를 통해 다시금 입증됐다. 미국 기독교 전문 리서치기관 바나그룹(Barna Group)이 최근 발표한 새로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회에 나가지 않는(unchurched) 미국 성인들의 절반 가까이 관계전도에 마음이 열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미국 성인 4만 2,855명과 인터뷰를 통해서 이뤄졌다. 이 가운데 교회에 가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들 중 47%가 가족이

나 친구의 초대를 받는다면 교회에 나가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가정 방문이나 전화 등의 전도 노력에는 이보다 낮은 27%만이 응답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사람들은 교회 광고에는 호응도가 생각 외로 높지 않았다. 응답자의 단 18%만이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등의 매스미디어를 통한 교회 광고를 보고 교회를 방문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메일 홍보에도 16%만이 긍정적으로 고려해볼 것 같다는 답을 했다. 이러한 비율을 토대로,

보고서는 사람들을 교회로 이끄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관계전도라고 제시했다.

한편, 연구는 미국에서 가장 기독교와 멀어져 있는 세대인 18세에서 28세까지의 밀레니얼 세대 가운데 48%가 어떤 신앙 생활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고, 성경을 읽는 등의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보다 앞선 세대인 30-40대의 X세대 가운데서는 40%가 신앙 생활을 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현재 교회에 나가지 않는 미국 성인 중 25%는 ‘단 한 번도 교회에 가보지 않은’ 사람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바나그룹의 데이비드 키너먼 회장은 이 설문 결과에 대해서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다. 이는 기독교 공동체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을 교회의 테두리 안으로 이끌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키너먼 회장은 비록 이

번 조사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유까지 다루지는 않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사회의 중대한 문화적 변화”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2009년 당시 미국 기독교 전문 설문조사 기관인 라이프웨이 리서치는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의 82%는 누군가가 예배에 초청한다면 응할 용의가 있으나, 교인들의 2%만이 1년에 한 명을 예배로 초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순현정 기자

크리스천을 위한 **오바마케어 벌금면제 혜택**  
(H.R. 3590 Religious Exemption)  
**월\$40~\$175**  
● 수입과 신분에 상관 없음  
● 모든 의사, 병원 사용 가능  
● 한국에서도 사용 가능  
CHRISTIAN MUTUAL MED-AID 가입문의 213-700-9212  
www.christianmutual.org

나라정비 타이어 대리점  
나라오토덴트  
유럽차 전문점  
SMOG CHECK  
**GOOD YEAR**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월~금: 8am~6pm /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 최혁 담임목사님의 남가주 교협 회장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저희 주안에 교회(InChrist Community Church)는 제45차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본 교회 최혁 담임 목사님이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남가주의 모든 교회들이 신임 회장님의 겸손하신 리더십을 통해 하나되는 놀라운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며 후원하겠습니다.

주안에 교회 성도 일동



- 세리토스채플  
13808 Imperial Hwy, Santa Fe Springs, CA 90670
- 비전채플  
12631 E.Imperial Highway #F134 Santa Fe Springs, CA 90670
- 밸리채플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el:(818) 363-5887, E-mail: iccc.office1@gmail.com



최혁 목사 약력

호남신학대학교 신학과 (B.A)  
Fuller Theological Seminary (M.Div)  
HIS University (Ph.D 과정중)

# 여성 소속 목회자 가족들에게 심과 회복을!

서부지방회 목회자들 친선 체육대회로 연합 다져



여성 미주총회 미국서부지방회 주관으로 목회자 친선 체육대회가 개최됐다.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미주총회 미국서부지방회는 지난 11월 1일(토)에 Ralph B. Clark Regional Park에서 "2014 목회자 친선 체육대회"를 서부지방회 주관, 미주총회와 성결대학교 미국서부지역동문회 후원으로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목회자와 가족, 그리고 동문들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총 3부에 걸쳐 진행됐다. 1부 예배에서는 강양규 목사(지방회 부회장)의 사회와 최한오 목사(증경 지방회장)의 기도로 김제임스 목사(지방회장)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아"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이용남 목사(지방회 서기)의 광고 후 이윤수 목사(성결대학교 미국서부지역 동문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곧 열린 푸짐한 바비큐 파티는 그동안 목회의 현장에서 다소 피로에 지친 목회자 및 가족들에게 쉼의 시간이 되었고 목회자 및 동문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의 장으로 이어졌다.

한편, 식사에 이어 시작된 2부 순서는 손민호 목사(지방회 회계)의 진행으로 동부감찰회와 서부감찰회 그리고 동문회 3팀으로 나누어 단체 줄넘기, 꼬리잡기, 축구공 이어달리기, 풍선 터뜨리기, 피구와 족구 등 재미난 게임으로 채워졌다.

계속해서 3부 순서는 시상식 및

폐회식으로, 보물찾기와 행운권 추첨 등 푸짐한 상품이 목회자 가족 및 동문들에게 돌아갔다.

이날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족구 대회 우승은 3팀 간의 치열한 경쟁 끝에 결국 서부감찰회(감찰장 장인관 목사)로 돌아갔으며, 행운권 추첨 MVP로는 정한 선교사 가족에게 최신 자전거 1대가 돌아갔다.

끝으로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명환 목사는 "모처럼 만에 야외로 나와서 지방회 목회자들과 동문들이 다 함께 모여 함께 뛰고 함께 먹고 함께 땀구는 가운데 심신의 모든 피로를 푸는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 된 것 같아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남가주 새언약교회

## 이상문 목사 초청 가을부흥성회

남가주 새언약교회(담임 강양규 목사)는 오는 11월 7일(금), 8일(토), 그리고 9일(주일)까지 매일 저녁 8시와 주일 오전 11시에 2014년 가을부흥성회를 갖는다. 이번 부흥회는 교회 설립 4주년 기념의 일환으로 서울 두란노교회를 담임하는 이상문 목사를 초청했다.



이상문 목사



강양규 목사

장과 두란노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부흥성회를 준비하는 남가주 새언약교회 강양규 담임목사는 "이번 부흥회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특히, 힘들고 지친 분들이 많이 오셔서 은혜받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가주 새언약교회는 LA 한인타운 인근 워싱턴 블러버드와 웨스트모어랜드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에 드리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 8시에 예배가 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기도를 오전 5시 30분에 드리고 있다.

문의: 213-434-1083  
주소: 1501 W. Washington Blvd. Los Angeles, CA 90007

## 2014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후원의 밤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후원의 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학교"란 주제 아래 11월 17일(월) 오후 6시30분 옥스포드팔레스호텔(745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5)에서

열린다. 학교 측은 "다음 세대의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려는 본교의 비전을 공유하고 후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을 초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문의: 562-926-1023

## "보이 스카웃 최고의 영예 이글 스카웃" 한인 청소년 2명 진급



이글 스카웃에 진급한 조나단 지, 네피 레이즈, 정지혁 군

라크레센타 지역의 보이 스카웃 395대에서 3명의 이글 스카웃이 탄생했다. 이글 스카웃은 전체 보이 스카웃 중 2% 정도만이 진급할 수 있는 최고의 영예로 여겨진다. 지난 26일 조나단 지, 정지혁, 네피 레이즈 군의 이글 스카웃 진급을 축하하는 Court of Honor 행사가 열렸다.

17세 한인 조나단 지 군은 초등학교 때 컵 스카우트를 시작으로 보이 스카웃이 됐다. 이글 스카웃이 되기 위해 그는 칠라오비저터 센터의 의자를 수리했다.

지 군은 빌리지크리스천스쿨에

다니고 있으며 드럼, 베이스기타, 클라리넷, 피아노 등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는 능력도 지니고 있다. 그의 꿈은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해군 ROTC로 미 해병대에 입대하는 것이다.

18세인 정지혁 군은 15명의 자원봉사단을 결성해 라캐냐다고등학교 야구장을 청소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온 중고물품들은 아이티공화국에 필요한 이들에게 기증하기도 했다.

정 군 역시 바이올린에 능숙한 인재이며 지난 리서치 인스티튜트에서 5년째 연구 활동 중이다. 최근에는

수직 폐쇄 회로를 통한 에너지 포착 용량 개선에 대한 조사를 발표하기도 했다.

17세 네피 레이즈 군은 칠라오비저터 센터 인근 야외 원형 극장을 수리하는 프로젝트를 마치고 이글 스카웃에 올랐다. 그는 글렌데일고등학교의 학생이며 어릴 때부터 이글 스카웃을 꿈꾸어 왔다고 한다.

캐머론 크로스비 대대장은 "이글 스카웃으로서 사회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할 때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격려하며 이들의 이글 스카웃 진급을 축하했다.

김준형 기자

**새 빛 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바드  
3130 W. Olympic Blvd, Suit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원)W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천천히 다 돌려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푸엔테힐스 현대 HYUNDAI**  
Puente Hills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 Missional Church • Globalization • Diversity • Third Culture • Neighborhood

**글로벌 교회의 컨퍼런스**  
GLOCAL CHURCH SUMMIT

www.GlocalChurch.net  
Date : 11월17th-19th  
장소: LA 포감사 선교 교회  
문의 : 213.271.7345  
www.GlocalChurch.net  
glocalchurchinfo@gmail.com

등록: \$150 (일반) \$100 (신학생, 개척교회)

**복음주의는 새로운 선교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민 교회로서 특별한 사명과 기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 다양한 민족들이 우리 이웃으로 세계 여러 지역에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선교적인 교회로 도약하여 지역 사회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선교적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 그리고 글로벌 교회(Glocal Church)에 대해 배우고 변화되기 원합니다.

**Plus Many More Presenters**

**함께하는 단체들**

ALAN ROXBURGH Missional Network  
양총길 목사 NJ 핑크리교회  
이상훈 박사 풀러신학교  
오종주 목사 Detroit 한빛교회  
고승희 목사 아람다움교회  
김동일 목사 LA생명찬 교회  
남성수 목사 오렌지카운티 한인교회  
송병주 목사 선한 정지기 교회  
Dave Gibbons New Song교회

HOME MISSIONS  
Christian Reformed World Mission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남가주교협 제45차 총회가 주안예교회에서 열렸다. 서기 김재울 목사가 전회의록을 낭독 중이다.



10월 토렌스조은교회에서 열렸던 파이어 크루세이드 ©Fire Crusade 페이스북

### 불같은 성령 집회, 파이어 크루세이드

하늘을 여는 찬양, 마음을 찌르는 말씀, 애통하는 기도가 있는 성령 집회, 파이어 크루세이드(Fire Crusade)가 열린다. 언어의 벽을 넘어서 부모와 자녀가 하나되고, 회개하고 치유받으며 주님 안에서 사명을 발견했다는 간증들이 이 집회에 넘쳐난다.

한 청년은 집회에서 은혜를 받은 후, 어머니를 모시고 그 다음 집회에 참석했으며, 방황하던 아들이 이 행사에서 은혜를 받고 단기선교를 다녀왔다는 간증도 있다. 언어가 다른 아들이 이 집회에서 성령을 체험했다는 고백도 있다.

이 행사를 이끌고 있는 그린힐스 침례교회 정기정 목사는 “죄와 타락의 물결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성령의 권능이 절실히 필요하다. 여러분 자녀를 보내 주시고, 자녀들과 함께 오시라”고 초청하고 있다.

이 집회는 11월 1일 그린힐스침례교회에서 OC 지역 연합집회로 열리고 이어 12월 13일(토) 저녁 6시 새생명오아시스 교회(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에서 LA 연합집회로 열리게 된다.

이 집회를 신청하고 싶은 교회는 개빈 리 간사에게 연락하면 된다. 문의: 213-505-4292

김나래 기자

### 지난 회기 남가주교협 다양한 사업으로 교계와 사회 섬겨

총 21만999달러 집행, 정관 일부 개정

남가주교협이 제45차 총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교협의 지난 회기 총 수입은 21만999.22달러로 지난해의 10만1,051.06달러보다 두 배가 넘는 규모였다. 올해에 갑자기 규모가 늘어난 이유는 두 가지로, 일단 사랑의쌀 운동을 위한 기금 8만3,893.53달러와 차세대장학금 2만7,700달러가 교협의 수입으로 잡혔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사랑의쌀 운동을 미주성서화운동본부 주관했기에 남가주교협이 직접적으로 재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차세대장학금 역시 OC교협과 함께 사업하면서 이를 남가주교협의 수입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올해는 사랑의쌀을 남가주교협이 주관하고 차세대장학금은 OC교협과 지역별로 모금해 지역별로 지급했기에 이 금액들이 남가주교협의 수입으로 잡혔다. 이 두가지 항목을 제외하면 지난해 교협과 올해 교협은 수입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올해 교협은 대사회적 활동을 많이 감당했다. 먼저 1월 신년조찬기도회를 시작으로 글렌데일 평화의 소녀상 건립과 관련해 일본을 규탄하는 집회에도 참석해 교계의 뜻을 전했다. 앤 박, 다이안 마타이 후보의 판사 출마, 제임스 헬름드, 짐 맥도넬 후보의 웨리프 국장 출마 당

시 지지 선언을 했으며 마이크 혼다 의원을 후원하는 행사에도 참여했다. 또 8월에는 이라크 내의 기독교 박해 문제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사회에도 이 문제를 크게 환기시키는 데에 기여했다. 9월, 차세대 리더 장학금도 지난해에 이어 계속했다.

교계 내적으로는 세월호기도회, 미스바대성회, 부활절연합예배 등과 함께 은퇴 교역자를 섬기는 조이 캠프를 그랜드캐년에서 9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광주광역시 기독교교회협의회와 MOU도 맺었다. 이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9,274.28달러의 적자가 발생했지만 박효우 회장이 헌금해 적자를 해소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정관 중 일부가 개정됐다. 가장 핵심된 내용은 임원의 자격에 대한 내용이다. 과거에는 “회장은 목회 경력 10년, 남가주 담임목회 경력 5년 이상인 자”가 가능했으나 이를 “목회 경력 10년에 남가주 담임목회 경력 3년”으로 개정했다. 부회장은 “5년 이상 목회 경력자”에서 “5년 이상 목회, 남가주 목회 3년”으로 결정됐다. 전체적으로 남가주 목회 연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 백중윤 정관계정위원은 “남가주 지역에 새롭게 부임

한 목회자들이 교계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줌”이라 설명했다. 그동안 남가주 목회 연수가 부족해 회장에 출마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또 민형사상 금과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사의 임기는 과거 “1년”에서 “1년이며 연임 가능”으로 바뀌었다.

그동안 회원에 관해서는 신청서와 입회비 100달러, 매년 회비 120달러 이상을 납부하게 되어 있으나 탈퇴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이번 정관에는 탈퇴에 관해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과거까지 교협 산하에는 신학위원회, 선교위원회, 교육위원회, 홍보위원회 등 23개 분과가 있었지만 참된교회부흥위원회, 영어실력향상위원회, 자연탐색공동위원회 등 3개가 더 추가됐다. 참된교회부흥위는 교회의 성장을 위한 정보와 세미나, 워크숍을 제공하는 위원회이며 영어실력위는 교회공동체의 부흥 성장을 목적으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자연탐색공동위는 식습관의 변화를 통해 건강과 영혼 구원을 돕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정관에 기록돼 있다.

김준형 기자

### 홍혜선의 천국·지옥 간증과 전쟁 예언 “풀리와 무관”

‘땅굴·12월 전쟁설’ 예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홍혜선 전도사에 대해, 풀리신학교가 입장을 발표했다. 홍 전도사가 풀리신학교 졸업생인지 문의가 쇄도했기 때문이다.

풀리신학교는 10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홍혜선 씨의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과 ‘한국전쟁에 대한 예언’은 인터넷 포털에 널리 퍼져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이유 때문에 신학교 차원에서 현 상황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홍혜선 씨의 천국 지옥 간증과 예언 사역에 관한 풀리의 입장(Fuller’s Position regarding Hae-Sun Hong’s Eyewitness and Prophetic Ministry)’이라는 문서에서 학교 측은 “홍혜선 씨가 풀리에서 공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학위 과정을 마치지는 못했으므로 풀리의 졸업생은 아니다”고 정리했다.

또 “천국과 지옥을 봤다는 홍혜선 씨의 간증과 하나님의 직통 계시(direct revelation from God)에 대한 주장을 근거로 하는 예언사역은 풀리신학교의 신학적 입장과 어긋난다”며 “풀리는 신앙선언서(Statement of Faith)에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한 신구약 모든 책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음과 실천의 유일 무오한 기준(3항)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풀리신학교 측은 “비록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모든 주장은 성경에 비춰 검증돼야 한다고 믿는다”며 “홍 씨의 가르침과 간증은 그녀의 개인적인 관점을 반영할 뿐, 학교의 신학적 입장이나 가르침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이대웅 기자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24hr 한국어 서비스

굿모닝 보험 213.761.9990 KEVIN YOO

**믿을 수 있는 농협 한삼인**

**창고대 방출**

농협 고려인삼 한삼인 서부총판 1-866-902-8282 www.korginseng.com

LA 지부: 3130 W Olympic Blvd #120 LA CA 90006 (8월14일~11월14일) T.323.737.8888

Fullerton 지부: 1701 W Orangewood Ave, Fullerton CA 92833 T.213.453.6624 (이리왕마케팅팀)

**홍삼순액**

100%홍삼농축액


100g 소비자가격	\$90	240g 소비자가격	\$185
2개 구입시 \$150		2개 구입시 \$370	
3개 구입시 \$180		3개 구입시 \$555	
4개 구입시 \$230			

30포 \$120, 60포 \$180, 90포 \$255, 120포 \$320


# 제 45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 회장단 이취임 감사예배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늘 저희를 위해 관심과 크신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와 교역자들이 하나되어 지역사회와 교회들을 섬기기 위하여 제45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단 이취임 감사예배를 가지려 합니다. 여러분들을 초청하오니 오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혁 목사**  
신임회장




**박효우 목사**  
이임회장

**일시** 2014년 11월 16일(주일) 오후 4시 30분

**장소** 주안예교회 (담임 최혁 목사)

**주소**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문의** 교회 (818)368-9883/www.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org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 in Southern California

981 S. Western Ave., Suite 401, Los Angeles, CA 90006  
Tel: (323) 735-3000 Fax: (323)735-3111 www.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org

# 캘리포니아와 미국의 대각성 한인들이 부르짖자

## 11월 11일 다민족기도회 좌담회

사회자: 신현철 목사

좌담자:  
한기홍 목사(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다민족기도회 대표대회장)  
강순영 목사(JAMA 대표, 다민족기도회 준비위원장)  
김기동 목사(OC교협 수석부회장, 다민족기도회 총무)  
전두승 목사(다민족기도회 한국 코디네이터)



CTS 아메리카와 기독교일보, 크리스천헤럴드가 주최한 다민족기도회 특별 좌담회에 참석한 교계 지도자들



신현철 목사

캘리포니아와 미국의 영적 부흥과 대각성을 위한 다민족연합기도회를 앞두고 한인교계의 준비가 역동적이다. 각 교회에 홍보자료가 배부되고 있고 관계자들이 매주 기도하며 지역교회를 방문해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 2011년 11월 11일, 로즈블에서 열렸던 로즈블 기도회에 이어 열리는 이번 기도회는 애너하임의 혼다센터에서 11월 11일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열리게 된다. 총 2만명의 수용 인원 중 주최측은 한인들이 1만5천명 참석해 줄 것을 기대할 정도로 관심이 높다. 이 행사를 앞두고 CTS 아메리카와 기독교일보, 크리스천헤럴드는 특별 좌담회를 열고 각종 이야기들을 들어 봤다. 이 좌담회는 최근 방송됐고 11일 오전 8시 30분 재방송된다. CTS USA 앱으로도 다시 볼 수 있다.

**신현철 목사:** 교계에 특별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좌담회를 진행하게 됐다. 3년 전 2011년 11월 11일 파사데나 로즈블 경기장에서 열렸던 다민족기도회를 기억하시는가? 3만여 그리스도인들이 인종, 피부색, 나라와 교단과 교파를 떠나서 함께 미국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했던 성령의 열기의 현장이었다. 3년이 지난 지금, 11월 11일 이번에는 애너하임 혼다센터에서 제2회 다민족기도회가 열리게 된다.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교계 대표급 목사님들을 모시고 한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행사에 어떻게, 왜 동참해야 하는지 말씀을 나누며 도전을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먼저, 다민족기도회의 의의와 바람이 있으시면 말씀해 달라.

**한기홍 목사:**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영적, 도덕적 위기에 놓여 있다. 모든 분들이 동감할 수 있는 내용일 것이다. 이 미국이 살아야 전세계가 살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계선교를 감당할 수 있다. 미국은 지금 심각하게 무너져 가고 있다. 미국이 회복될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이 답이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기도자, 목회자가 일어서서 중보기도하자는 취지에서 연합기도회가 시작됐다. 캘리포니아에만 해도 약 160여 민족이 살고 있다. 이 중 정말 신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민족들이 같이 모여서 미국의 주인의식을 갖고 부흥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이번에 기도회가 열리게 된 것이다.

**신현철 목사:** 이 대회가 처음 열린 것이 3년 전이다. 우리는 다민족기도회에 대해 대강 알지만, 이 대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떻게 여러 민족이 하나됐는지, 미국교회 측과 한인교회 측의 다리 역할을 하시는 전두승 목사님께서 소개해 달라.



한기홍 목사

**전두승 목사:** 11.11.11 로즈블에서 모인 기도회의 주제가 A Line in The Sand, “더 이상 물러서지 말자”였다. 캘리포니아의 영적, 도덕적 타락으로 하나님을 배역하고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힘들게 하는 많은 법들이 제정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기도자들이 “더 이상 물러서지 말자. 바다의 모래 위에 선을 그어 놓고 더 이상 물러서면 안된다. 타협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넘어 가자”는 동일한 비전을 받았다. 재난과 지진 등 위기를 오히려 부흥의 기회로 만들자는 취지다. 캘리포니아를 위해 기도하던 ‘리스팅 팀’이라는 중보기도자들과 목회자들, 정치지도자들이 ‘Pray 캘리포니아’라는 250명 규모의 중보기도 그룹과 모이기 시작했다. 파사데나의 30여 목회자가 시를 위해 기도하던 중 로즈블 사장이 이 소식을 듣고 그 장소를 무료로 빌려 주겠다고 했다. 처음엔 3천명을 생각했는데 모든 민족, 그룹이 참여하다 보니 3만 명이 모였다. 이 기도회 소문을 들은 한국교회 지도자들도 동참하게 됐다.

**신현철 목사:** 말씀만 들어도 비장함이 느껴진다. 하나님의 역사로 많은 분들이 기도하게 되고 한인교회가 참여하며 활성화 됐다. 여러 민족이 모여 기도하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생각이 든다. 로즈블 대회 당시 기도의 여러가지 정조와 응답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강순영 목사:** 저는 당시 동원을 맡아 행사를 준비했는데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기도했다. 우리 중보기도팀이 비가 몰려 가게 기도했더니 로즈블에 만비가 안왔다. 그런데 단 한 번 비가 왔다. 우리가 “은혜의 비가 내리네”라는 찬양을 할 때에만 비가 내렸다.

시간대에 따라 3전에서 6천-7천여 명이 왔고 밤에 한인이 인도할 때는 2만 명 중 1만 명이 한인이었다. 스쿨버스 10대를 빌려서 온 교회도 있었다. 다른 인종 리더들이 기도할 때에는 혼자 기도를 인도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눈을 감고 기도했지만 한인 인도 시간에는 김준근 교수가 “비상 시에는 비상기도를 해야 한다”며 코리아 스타일 기도를 소개했다. “주여 삼창”으로 통성기도했다. 이 때에 타민족들도 방언이 터지고 환상을 보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리고 13명의 한인 목회자들이 기도를 인도하며 통성기도하고 났더니, 중보기도자들의 소감에 보면, 한인 목회자들의 기도 시간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한다. 중보기도실에도 다른 인종은 6-7명이 왔는데 한인들은 70명이 가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했더니 앞뒤 사람들이 놀라서 기도하는데 마치 사자의 호령을 듣는



강순영 목사

것 같았다고 한다. 그 다음부터 미국의 다민족들이 “기도하면 한인”으로 인식하게 됐다. 그 후 크라이 할리웃 집회, 낙태반대를 위한 워싱턴 DC 집회에서도 한인목회자들이 기도예 초대 받았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크랜서 크리스천 센터에서 기도회를 할 때도 4분의 3이 한인이었다. 이번 대회도 2만 명 중 1만5천명 한인들이 참여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신현철 목사:** 성경에 나오듯, 신실한 하나님은 기도예 응답하신다. 영적 회복을 위해서 이 기도회가 꼭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한기홍 목사:** 이번에 다민족 연합기도성회 이후에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지역마다, 도시마다 나라와 도시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려 한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 미국에 부흥이 와야만 미국이 회복될 수 있다. 이 성회는 기도예 불을 붙이는 것이다. 이 기도회에 이어서 미기총, JAMA, 교협들이 연합해서 도시 별로 기도회가 열릴 예정이다. 1월 은혜한인교회, 2월 달라스, 3월 뉴욕, 4월 워싱턴DC, 5월 시카고, 6월 시애틀 등 대도시에서 이미 기도회 장소가 결정됐고 연합성회가 준비되고 있다.

**신현철 목사:** 다민족기도회가 혼다센터에서 열리지만, 한인교계에서는 전 미국으로 기도예 확산된다고 하셨다. 한인교회와 미국교회에 기도예 확산되는 놀라운 운동이 계속되면 좋겠다. 한인교회가 본 대회를 어떻게 준비하고 도와야 하는지 알려 달라.

**김기동 목사:** 이번 대회는 미기총과 자마가 주관하며 각 지역의 교협과 목사회, 청년단체들이 한 마음이 되어 주최하고 있다. 이 대회를 주최하며 단순히 이 대회만 하는게 아니라, 준비하며 온 교회가 기도하는 운동과 불을 일으켜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 각 교회마다 이 대회를 위해 일일 금식하는 연쇄금식운동을 하고 있다. 실행위원과 분과위원들이 매주 모여 기도하고 준비중에 있으며 전단지과 포스터, 행사 CD를 각 교회에 보내 교회들이 교인들을 동원하는 일에도 힘쓰고 있다. 11월 2일 국가를 위한 기도 주일을 마련해서 각 교회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불을 만들도록 한다.

**강순영 목사:** 목회자들이 11월 2일 주일 설교도 미국의 위기를 전하는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CD로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 전단을 교인수만큼 각 교회로 보냈다. 한 교회도 빠짐없이 전 교인들이 나라를 위해 주인의식을 갖고 기도하자고 호소 중이다.



전두승 목사

**신현철 목사:** 11월 11일 혼다센터에서 기도회가 열리지만 이미 전 한인교회는 11월 2일 기도운동을 시작했다는 말씀이다. 이번 일을 기점으로 한인교회가 더 하나로 결집되길 바란다. 한인교회가 프라임타임을 담당하는데 어떤 분들이 기도예 섬기시는가?

**김기동 목사:** 한기홍, 박희민, 김영길, 박성규, 김인식, 박용덕, 진유철, 민경엽, 엄영민, 권혁민, 남성수, 김바울, 정기정, 스티븐 정 목사님과 학생들 가운데에 두어 명이 동참해서도 기도예 인도한다.

**신현철 목사:** 대표기도자 가운데 학생이 있다는 점이 참 이채롭다.

**김기동 목사:** 어른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차세대, 어린이들도 함께 기도한다는 데에 뜻을 갖고 요번에 동참하도록 했다.

**신현철 목사:** 그동안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면 보통 시니어 세대와 다음 세대가 따로 했는데 이번에는 다음 세대가 함께 하는 표징이 될 것 같다.

**강순영 목사:** 이번 행사를 준비하며 모든 청년 단체들, 학생단체들을 접촉했다. 그동안 1세대들이 좋은 모습을 못 보여 주었는데 이번에 1세대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싶다. 우리 뒤를 이어 차세대들도 미국을 위한 기도 운동을 주인의식을 갖고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고 싶다. 목회자들이 2세대들 기도회에 많이 데려오면 좋겠다.

**신현철 목사:** 이번에 미국을 위해 기도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가?

**강순영 목사:** 회개와 부흥이다. 미국이 역사적으로 원주민에게 잘못된 것, 노예들에게 잘못된 것부터 시작해서 공립학교의 기도와 성경 없던 것, 가정 제도를 파괴한 것, 포르노로 전세계를 타락시킨 것, 공개적 배도 등을 눈물로 회개한다. 두 번째는 부흥이다. 부흥 외엔 해결책이 없다. 오순절보다 더 강력한 성령을 주셔서 부흥이 일어나고 미기총이 이 열기를 미 전역과 한국으로 옮겨서 교회가 능력을 회복하고 세계 선교에 올인 하길 바란다. 교



김기동 목사

회와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한다. 문화와 영상 매체, 특별히 복음적 영화, 선교적 영화가 제작되길 기도하고 국가 지도자들, 판사들, 주지사들,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한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미국을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한다.

**신현철 목사:**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고 영적 회복 위해 모두가 기도하고 참여해 주길 바란다. 당일날 교회들이 어떻게 현장에 와야 하는가?

**김기동 목사:** 11월 11일은 베테랑 스테이디니 쉬는 사람이 많다. 여러 사람이 가능하면 카풀로 오기 바란다. 스쿨버스로 오면 저렴한 가격에 올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넓은 주차장이 있고 혼다 센터가 시설도 좋고 교통도 편리하다. 엔젤스 스타디움 바로 앞이라 찾기도 쉽다. 전 교인, 전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런 기회에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길 바란다.

**신현철 목사:** 오후 1시부터 행사가 시작되는데 한인들은 저녁 6시 30분에서 8시30분까지 기도한다. 가능하다면 그 시간에 오면 좋겠다. 우리 모두 동참하길 바란다. 우리가 좌담을 정리하면서, 한기홍 목사님께 미기총 회장으로서는 초청의 메시지를 부탁한다.

**한기홍 목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가주에 세워진 교회들을 섬기시는 모든 목사님들, 정말 우리가 미국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미국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원한다. 11월 11일 꼭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석하시라.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미국에 영적 대부흥을 부어주시길, 이 땅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다 같이 함께 참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신현철 목사:** 오늘 말씀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미국을 위해 기도할 때이다. 얼마 남지 않은 이 다민족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미국 땅에 영적 각성 운동이 시작되고 전 미국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미국을 하나님께서 붙잡는 축복의 기회가 되길 기대하고 바라보고 확신한다. 기도함으로 동참하자.

정리= 김준형 기자

##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정재호,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준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맹토마스  
교문번호사 : 정찬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 선교를 재촉하시는 하나님

## 사도행전 8:1-8



서울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감람산 꼭대기에서 두 천사가 예수님을 받들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육백여 명의 제자들이 산꼭대기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곧 임하실 것이니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사도행전 1:10에서 천사들이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적 결단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 쓰시겠다는 말씀을 남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몇 날이 못되어 사도행전 2:1 이하에 보면 오순절이 이르렀고 제자들 20명이 함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자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설교 한 번에 삼천 명이 회개하고 성령 받는 놀라운 부흥회가 이루어졌습니다.

### 1.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선교

이방에 나가 살던 나그네 된 유대인들, 외국에 떠돌아다니며 장사하며 먹고 살던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려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에 모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사도들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회개하고 성령 받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로 모여 들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는 선교가 온 유대 땅을 정복하고 북쪽의 사마리아를 복음으로 점령하고 전 세계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복음을 선교하라고 모여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리스, 터키, 그 외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보부상을 했었기에 그들에겐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었지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식민지 생활로 그들의 가진 것들은 로마 군대에 빼앗기는 일이 반복되면서 그들은 의욕도 잃고 하루하루를 근근이 살아가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려 예루살렘에 와서 갑자기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엄청난 은혜를 받고 보니까 회개가 터져 나오고 그들의 심령이 용광로처럼 그리스도의

의 심장으로 바뀌어지는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들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들을 차비를 빼고는 모두 사도들에게 줍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말씀하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1:8)는 말씀을 속히 이루어지도록 선교기금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험뎠고 굶주린 생각만 하고 그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물들을 나누어 구제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구제하는 일에 치우치다가 열두 사도가 그의 제자들을 불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공역을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라”(행6:2-4)고 말하고는 스테반을 비롯한 일곱 집사를 세우고는 그들은 기도와 말씀선포에만 전적으로 힘쓰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에 의해 이적기사는 계속되고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 양적으로 증가했고 더 불어 많은 헌물과 헌금이 있었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사용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7장에 스테반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말하게 하시고 그를 믿고 회개함으로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설교에 예수님의 죽음에 앞장섰던 서기관과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양심에 자극이 되어 사람들을 선동하여 그를 돌로 쳐 죽이게 만듭니다.

그는 성령이 사키시는 설교를 잘한 덕분에 돌에 맞아 죽는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사도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선교를 하지 아니하고 선교 밀전으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입히고 먹이느라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소비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훗날 바울이 되는 사울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철퇴를 가하게 하십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곳으로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교회가 선교를 지독하게 할 생각을 안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것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철퇴를 들러서 예루살렘 교회를 박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선교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바깥 세력에게 힘을 줘서 그 교회를 박해로 두들겨 패도록 만드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박해가 시작되니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스테반 집사처럼 죽지 않기 위해 유대와 사마리아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11:19-21에 “때에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했습니다. 유대도 도망간 사람, 사마리아로 도망간 사람들이 거기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받은 성령, 모시고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 법칙입니다. 하지 않으면 강제로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어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 2. 순교를 통한 선교의 재촉

선교는 영어로 미션(Mission)이라고 합니다. 미션의 본뜻은 사명입니다. 그것은 구원 얻은 성도, 성령 받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이라는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 갔다가 거기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그 빌립의 하는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 즉 빌립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표적이 나타나도록 빌립 집사를 통하여 이적기사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빌립이 말하는 것도 듣고, 나타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가 전하는 복음을 따랐으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나가는가 하면 또 많은 중

풍병자, 앉은뱅이가 나음을 얻으니 빌립이 와서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12:1에 보면 그 때에 헤롯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예루살렘 교회의 선교가 예루살렘 안에서 유대 땅 사마리아에만 머물러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땅 끝까지 전파되지 못하고 있어서 사도 중 하나인 우리의 아들 야고보를 헤롯왕을 내세워서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이것 또한 선교를 더 재촉하시는 박해를 가하기 위해서입니다.

### 3. 천국소망을 전하는 성도

예루살렘이나 로마, 어느 곳에 가셔든 교회가 부흥 성장하면 박해가 있어 왔습니다. 그것은 현재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진리와 성령으로 깨달아 회개하면 거듭나게 하실 때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을 받은 그 시간부터 그 인생은 육신이 세상조건으로 평안히 살기를 기대하는 생각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련과 고통을 겪게 되더라도 “내가 받은 그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하여 목숨을 내걸고 선교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면 하나님이 또 박해를 당하게 하시어서 열심히 선교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 얻었으니 세상 조건으로 슬퍼하거나 힘들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좋은 생각과 행복한 모습으로 생기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믿는 믿음, 구원의 확신, 천국소망을 전하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크리스천 투데이	7면 설교 / 동영상 · 인터넷신문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40 라디오 코리아 AM1590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시카고 기독교방송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주일 오전 7시 / 동영상 설교 제공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화요일 오후 7시30분
크리스천 헤럴드	7면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AM1650 금요일 오후 2시30분
		오프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LA 미주 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 2014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1-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 상담학  
석사: 신학/ 목회학/ 상담학  
박사: 신학/ 상담학

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증  
특전: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솔로몬 대학교**  
말씀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 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oi Chang Kim: (213) 268-9367  
hoichangkim@hanmail.net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통신신학 \*한국상고사(한단고, 규원사학)**  
- 신학(학사, 석사, 종교철학박사 전공) .  
- 한국상고사(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전공은 일제 식민사학 (단국신학)이 아닌 전통학사서 한단고, 규원사학 중심으로 학사, 석사, 박사 단기 완성 가능함.

\*본교는 캘리포니아 Education cord #94874 비영리종교법인(연방 501C3)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한국장로교단 미주노회에서 남,녀 목사안수 가능함.

아메리칸 중앙대학교 중앙신학대학원 www.acus-edu.us  
mail, 379 Loa drive #301 L.A, CA 90017 paul Lim : 213-908-8986  
email : acus-edu@hotmail.com / acus1mjeongui@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100 e-mail : info@chongshinusua.edu  
www.chongshinusua.edu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i.us

##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 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 픽업가능

▪ 성인을 위한 무료 골프교실도 오픈합니다. (성경공부 필수)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선교학 Ph.D



##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 FTB, SBOE, 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TC)
- 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 소셜연금, 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http://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 PARAGUAY CHRISTIAN PRIVATE SCHOOL

파라과이 기독교 사립학교에서 선교에 Heart 있는 영어 & 수학 선생님 모집합니다.

#### <자격>

현재 대학 졸업생 아니면 졸업반.  
주일학교 경험자.  
교사 무경험자도 Ok.

**Colegio JIS**  
Ciudad del Este, Paraguay

기간 : 02.05.2015 ~ 12.05.2015

비행기 왕복 + 비자 비용 + 현지 선생님과 같은 사례비 + 숙식 제공

Eunice Han  
Tel. 213)505-5040  
Email : eunicehan@gmail.com

어머니의 집 앞에 있는 목욕탕에 갔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이었는데도 제법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몸에 문신을 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몸이 도화지도 아닌데, 여기저기에 낙서를 하고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팔, 팔뚝, 어깨, 목덜미, 등쪽, 다리, 손가락 그리고 눈꺼풀에 이르기까지 공간이 보이는 곳에는 전부 문신을 했습니다.

제 앞에서 비누질을 하고 있던 한 젊은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왜 문신을 했어요?” 당당하게 청년이 말합니다. “문신을 하면 멋있어 보이고 강해 보이거든요!” 이 청년의 말 속에 요즘 사람들이 문신을 하는 이유가 다 들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요즘에는 문신을 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미용이나, 강해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의료용으로 문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문신을 하면 더 남자 같이 보이고 강해 보인다는 믿음 때문에 문신을 하는 것입니다.

## 문신(文身)의 계절



김세환 목사  
LA연합감리교회

성경에 보면, 당시에도 문신이 행해졌음을 보여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레위기 19:28) 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बे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의 털을 밀지 말라”(신명기 14:1)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미용이나 성형을 목적으로 하는 문신이 아니라,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한 주술이나 우상숭배의 관습 속에서 거행된 예식들입니다. 그러므로 미용을 위한 문신을

성경이나 교리에 비추어 죄라고 단정해 버리는 것은 분명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과 열정을 집중해야 할 신앙인이 악한 시대정신에 휘둘려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몸을 세상의 도구로 내어주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법으로 문신을 금지했습니다(787년 니케아공의회). 특히, 강력한 유교의 영향권 아래 놓여있던 한국은 더더욱 문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강화시켰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몸에 상스러운 문신을 갖는 것이 결코 신앙인다운 모습이나 정서를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신경 쓰고 노력해서 우리의 몸에 담아야 할 것은 세상의 문신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임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Sincerely



제이슨 송 교장  
세안약초중고등학교

미국에 살다 보면 많은 편지들과 이메일을 받게 된다. 거의 모든 편지의 하단엔 “sincerely”란 문구를 볼 수 있다. 한글로 번역하면 “진실로” 내지 “진정한”과 비슷한 표현인데, 위에 쓴 글의 내용이 사실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Sincerely란 원래 “without wax”란 뜻의 단어라고 한다. 간단히 설명한다면, 과거에 어떤 물건을 사고 팔 때 흠있는 부분을 왁스로 때우고 그 위에 페인트를 칠함으로 속여 파는 행위에 근거를 둔 단어로서 sincerely란 눈가리고 아웅하지 않음을 뜻한다.

교사는 학생을 지도할 때 자주 sincerity란 개념에 부딪힌다. 숙제를 해 오지 않은 학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왜 체육시간에 참여할 수 없는지, 왜 부모님이 필요한 노트북이나 도구를 주지 않았는지, 왜 리포트를 제출하는 날에 갑자기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렸는지, 왜 프린터의 잉크가 인쇄 직전에 떨어졌는지 등 다양한 사건(?)을 통해 정말 sincerely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된다.

물론, 모든 학생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몇몇 학생은 같은 변명을 자주 하기에 신뢰하기 어렵다. 결국 반복되는 변명에 대해 학부모와 대화를 나눠보면 학

생에게 정직함에 대하여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된다. 왁스(변명)를 사용하여 간신히 뺄지는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핑크가 나는 것이다. 교사는 정직한 학생을 좋아한다. 그리고 잘못을 시인한 후 수정하고, 고치고, 발전하는 학생을 더 좋아한다. 그 이유는,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실수를 통해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소위 “teachability”라고 한다.

예를 들어, 학생에게 Algebra를 가르칠 경우, 우선 학생이 모르는 개념에 대해 교사는 가르치고 설명한다. 그리고, 학생이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숙제와 시험을 통해 검증하며, 문제를 잘 풀지 못하면 더 자세히 이해하도록 도와 학생을 가르친다. 그런데, 학생이 컨닝을 하든지, 아니면 모르

는 것을 아는 척하며 슬쩍 넘어간다면, 그 학생은 다음 과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결국 그 학생은 “sincerely” 배우지 않았기에 실패하게 된다. 자신이 판 구덩이에 빠지고 마는 것이다.

정직함에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사회 생활에도 실패한다.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자주 거짓말을 하고 고의로 남을 속이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설령 속임을 통해 물질과 사회적 직위를 얻었다 하더라도 양심에 가책이 있는 성공을 진정한 성공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렇게 얻은 재물과 가시적인 업적 뒤에는 얼마나 많은 상처와 타인의 피해가 남아있겠는가!

성경에서는 sincerely를 “신실하다”라고 표현하며, 정직을 식물로 삼으라고 가르친다. 즉, 하루 세끼 식사를 하듯 매사에 정직하란 뜻이다. 아이들에게 정직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부모가 정직해야겠다. 그렇기에, 디즈니랜드 입장비를 절약하려고 나이를 속이라고 가르치지 말자. 뷔페 식당에서 열 살이라고 말하라고 하지 말자. 약속을 잘 지키자. 변명하지 말자. 정직에 본을 보여줌으로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정직하게 살기로 다짐하도록 돕자. 왁스로 뺄필 필요없는 투명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자.

## 세계관을 바꾸라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이곳 미국에서는 지난 10월 13일이 “콜럼버스 데이”로서 휴일이었습니다. 이 휴일을 남북 아메리카 전체에서 즐겁게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은 “더 이상 콜럼버스 데이를 기념하지 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콜럼버스가 1492년 아메리카 대륙에 첫발을 디딘 것이 150년간 계속된 인종 학살을 촉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미국과 중남미의 몇몇 나라에서 공휴일로 기념하는 ‘콜럼버스의 날’ 10월 두 번째 월요일을 오히려 ‘원주민 저항의 날’로 바꾸는 대통령령을 2002년에 내린 바 있습니다.

반미주의의 선봉에 선 차베스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면이 있지만, 올해 미국에서도 콜럼버스 데이는 봉변을 면치 못했습니다. 미국 원주민, 소위 인디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인권단체, 사회단체, 학자와 언론은 이 기념일에 대하여 엄청난 비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시애틀 의회에서는 이날을 토착민의 날(Indigenous People's Day)로 지정하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시애틀 교육구도 콜럼버스 데이를 올해부터 토착민의 날로 기

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우스 다코타, 앨라바마, 오레건, 알래스카와 하와이 주에서는 이미 이 날을 국경일로 지키지도 않습니다.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감을 잡으신 것처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거부입니다. 콜럼버스가 발견한 바하마제도나 그들이 오해했던 것처럼 서인도 제도가 아니었고, 그곳에는 이미 토착민들이 잘 정리된 사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미에만 추정하건대, 약 800만 이상의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중남미를 통틀어 약 1,3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 땅의 주인이 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콜럼버스가 신천지를 발견했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서구 유럽 중심의 생각인 것이며, 원주민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백인 위주로 판단하였다는 점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중요합니다. “아메리카가 신천지”라는 말은 서구, 남성, 백인 중심의 관점이 반영된 이야기입니다. 원주민들은 그 땅을 오래 동안 소유한 사람으로서 억압당하고 탈취당하였다는 점을 이제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소위 인디언 보호정책을 내놓을 때, 수백만명의 그 땅인 인디언은 20만 명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중남미의 수많은 메스티조는 스페인 사람과의 혼혈입니다. 소위 기독교 문명권은 전대 미문의 학살과 성폭력을 원주민에게 자행한 것입니다.

여기서 회심하지 않은 서구의 문명은 다시 유대인을 향하여, 흑인을 향하여 엄청난 비윤리를 저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계관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잘못된 관점은 엄청난 부정의를 자행하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이에 대하여 바르게 판단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려는 노력입니다.



# 종교개혁자 따라 복음주의로 살라

### 종교개혁 497주년 기념예배 주님세운교회에서



10월 26일 제497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해 주님세운교회에서 기념예배가 거행되고 있다.

10월 26일 종교개혁 497주년을 기념하는 예배가 주님세운교회에서 거행됐다. 이는 종교개혁 500주년 미주 기념사업 준비위원회가 추진하는 각종 기념사업 가운데 첫 번째 행사로 이 단체는 향후 3년간 다양한 기념 사업들을 벌인다.

이날 예배의 사회는 협력위원장인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가 맡았고 준비위원장 김영대 목사가 기도했다. 협력위원장 최아브라함 목사(UCS신학대 총장)가 갈라디아서 1장 6-12절을 봉독한 후, 공동회장 류종길 목사(미성대 총장)가 “복음과 다른 복음”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류 목사는 “복음의 초점은 하나님께, 다른 복음의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법이다.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본받는 복음주의자들이 되라”고 당부했다. 이후 대표회장인 정시우 목사가 축도했다.

예배 중에는 박성규 목사가 종교

개혁 기념사업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해 감사패가 증정되기도 했다.

이 단체는 이날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497주년 예배를 드린 것을 시



김영대 목사(왼쪽)와 정시우 목사(오른쪽)가 박성규 목사(가운데)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작으로 11월 하순경에는 종교개혁에 관한 신학 세미나를 열고 3년 동안 다양한 신학 세미나를 분기마다 개최한다. 2015년 사순절에는 특별히 ‘루터’에 관한 세미나를 연다. 종교개혁에 관한 설교 콘테스트도 열어 목회자들에게 종교개혁에 관한 설교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며, 특히 한인 2세 목회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500주년이 되기 전에 종교개혁기념주일 공동예배문을 작성해, LA 지역 한인교회들이 종교개혁을 통해 하나되는 장도 마련하려 한다.

또 교회 연합을 위해 향후 남가주 지역의 교회연합단체, 각 교단의 지도자 및 원로, 각 분야의 신학자들의 도움과 협력을 받아 이 운동을 전한 인교회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김준형 기자

# 빅토빌한인목사회 회장에

## 백석영 목사 당선



좌측에서 다섯번째가 신임회장 백석영 목사

11월 3일 오전 10시부터 빅토빌한인목사회 정기총회가 주의사랑 선교교회에서 개최됐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창립된 지 9년을 맞이한 빅토빌목사회의 신임회장은 백석

영 목사(주의사랑선교교회)가 당선됐으며 총무에 고승경 목사(힐렌데일한인선교교회), 회계에 우정은 목사(열린문기도원) 등이 임명됐다.

김나래 기자

# <96년을 함께 하신 하나님>

## 박영찬 장로의 간증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저의 간증 글을 교회와 성도들, 가족, 일가친척, 친치,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박영찬 장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린 일곱살 적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가면 친구들과 어울려 찬송부르는 것이 즐거웠고, 전도사님이 가르치는 성경 말씀 중 다윗과 삼손 이야기가 어찌나 재미있던지 종일 기뻐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세살 때 여윈 저는 집에 돌아오면 늘 쓸쓸하였습니다. 당시만 하여도 어머니의 뜻이 중요한데 저는 모유가 부족하여 몸은 쇠약하였고 식구들은 제가 단명하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아이는 믿음이 있다고 보시고 96세인 현재까지도 새벽기도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출석하니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시며 참으로 놀랍고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남가주 살롬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도 간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축복 주심에 무한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부흥 발전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 나이 90세 어느 추운 날, 제가 마음에 상처를 받아 가슴이 울적하고 눈물이 흘러 견잡을 수 없던 순간 갑자기 우렁찬 소리로 “내가 너를 군세게 하리라”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방을 둘러 보았으나 아무도 없는 빈방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제 가슴이 시원해지고 눈물이 푹 그쳤고 방 안에 온기가 돌아서 따뜻하여졌습니다. 누군가 있는 것 같았으나 보이지는 않았습니

하나님께서서는 이사가 41장 10절에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나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나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저를 붙들어 주신 은혜 여러 번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 나이 90세 어느 추운 날, 제가 마음에 상처를 받아 가슴이 울적하고 눈물이 흘러 견잡을 수 없던 순간 갑자기 우렁찬 소리로 “내가 너를 군세게 하리라”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방을 둘러 보았으나 아무도 없는 빈방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제 가슴이 시원해지고 눈물이 푹 그쳤고 방 안에 온기가 돌아서 따뜻하여졌습니다. 누군가 있는 것 같았으나 보이지는 않았습니

역대상 4장 10절 말씀에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대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시나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였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승낙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야베스의 기도를 본받아 다음 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비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에 지은 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구역장 김장로님 가정 위에 그리고 만나면 반갑고 화기애애한 화요일 모임에서 식사를 함께 하며 웃음으로 담화를 나누는 안 집사님 가정, 손 집사님 가정, 왕 장로님 가정, 흥 집사님 가정, 그리고 친구 박운기 목사님 가정, 주 목사님 가정, 그리고 저와 저의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박광식 권사님, 모두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걱정이 없게 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교계 단신

### 구세군 자선냄비 자원봉사자 모집

구세군나성교회(담임 이주철 사관)는 전세계 불우이웃돕기 운동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자선냄비에 동참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하루 2시간 원하는 날짜에 지정된 장소에서 모금에 참여해 주

면 된다. 교회 측은 “지역사회를 아름답고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이번 기회에 많은 교회와 학생 그리고 단체 등 교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408-480-3171(이주철 사관)

###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미주서부노회 복구

지난 9월 제99회 총회에서 미주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에 노회를 복구하고 국제개혁신학대학교와 버지니아크리스천대학교를 인준신학교로 가결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2014년

11월 6일 오전 10시 나성열린문교회에서 미주서부노회를 복구한다. 동부는 이미 지난 10월 30일 동부제일교회에서 노회를 복구한 바 있다.

문의: 213-383-2600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

**웨스턴+3가에 있는 웨스턴 빌리지 센터로 이전했습니다**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 헤어 컬러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 10시까지 영업 (퇴근후 찾아주세요)**  
편리한 위치 -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새로운 장소에서 보다 더 편리하게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마이스타일 미용실은 서울 청담동의 최신 한국 유행 트렌드와 베버리힐스의 미국 유행 트렌드가 결합되어 당신에게 꼭 맞는 헤어스타일을 찾아드립니다.

**헤어 컬러 \$30 up \$10 up**  
\* 단, 컬러만 하시면 \$30.

**매직 스트레이트 \$100 up**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9:00 AM ~ 10:00 PM  
Tel: 213-739-1022





# 교회 소식

## LA 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양성령침례 오후 8:00, 금요일성경공부 오후 8: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백재준 담임목사**  
 주일예배(주일) 오전 11:30 새벽기도(토) 오전 06:00, 교회학교(주일) 오전 11:30 토요일(토) 오전 06:00, 문화교실(주일) 오후 01:30 성경연구(수) 오후 07:30

**행복한주님의교회**  
 우리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군대, 주님의 신부입니다  
 7690 Archibald Ave. Rancho Cucamonga, CA 91730  
 T. (626) 710-0798 / todad7@hotmail.com

**김성철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주일학교 오전 11시,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성경공부 오후 1:30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2:50 수요일 오후 8:00 금요일 오후 8:00

**고태형 담임목사**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새벽기도(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수요일새벽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 6:00 (토) 오전 6:00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 6:00 (토) 오전 6:00

**고송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박신철 담임목사**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새벽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이훈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오전 10:00-11:00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양성필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 (토)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 사우스 베이 지역

**안병권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목요일 오후 7:30분, 새벽예배 오전 6:00(수,토), 주일오후 성경공부 오후 1:30, 영어예배(EM) 오전 11:3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30

**가나교회**  
 1201 W. 255th St. Harbor City, CA 90710  
 T. (310) 986-9797 / ganachurch.homepage.com

**정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중, 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중, 고등부예배 오후 9-11시

**나성금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45, 목요일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금요일양예배 오후 7:45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서보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10:2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중, 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schurch.com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EM 1부 9:30/2부 11:00, 중, 고등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다민족 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가디나선교회**  
 1044 West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 365-9188

**강신권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세계성경장로교회**  
 신통(通)하고 인통(通)하며 물통(通)하여 만사형통합니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이중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9400 / cornerstonetv.com

**김바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15(EM) 청년부, 5부예배 오후 3:00(KM) 청년부, 장애우예배 오전 10:00, Today-Youth 오전 11:3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류준영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세교우반 오후 1:00, 수요일양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7:00 (토)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hurch.com

**이성현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EM예배 오전 9:30/오전 11:00, 수요일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최호년 담임목사**  
 EM예배 오전 10:00, 스페인예배 오전 10:00, 한국어 오전 10시(힐로우쉽) 오후 12:00(분당),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금요일양예배 오후 8:00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나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벨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예배 - 오전 8:00 / 9:45, 금요일성경예배 - 저녁 7: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세리토스채플 Cerritos Chapel**  
 주일예배 - 오전 9:30 / 11:30, 목요일성경예배 - 저녁 7:45, 13808 Imperial Hwy., Santa Fe Springs, CA 90670

**비전채플 Vision Chapel**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12631 E. Imperial Hwy., #F134, Santa Fe Springs, CA 90670

##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el.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 뉴욕교협 회장 이재덕 목사-부회장 이종명 목사

장로 부회장에 박영진 현 교협 이사장, 감사-허윤준, 김영철 목사



뉴욕교협 제40회 정기총회가 27일 뉴욕효신장로교회에서 개최됐다.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제40회 정기총회가 27일 오전 10시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개최돼, 신임 회장에 이재덕 목사, 신임 부회장에 이종명 목사, 신임 장로부회장에 박영진 장로가 선출됐다. 감사는 김영철 목사와 허윤준 목사가 뽑혔다.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단독후보로 출마했던 올해 선거는 특별한 이변없이 무난한 분위기 가운데서 진행됐다. 회장 이재덕 목사는 총 112표 중 찬성 81표, 반대 28표로 당선을 확정지었으며, 부회장 이종명 목사는 112표 중 찬성 103표, 반대 9표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다. 장로 후보로 나선 박영진 장로, 감사 후보로 나선 허윤준 목사와 김영철 목사는 별도의 무기명 투표 과정 없이 총대들의 박수로 반기로 동의와 제청이 이어져 박수로 그대로 받았다. 새 회기를 리틀넥 새회관 시대와 함께 개막하는 이재덕 신임 교협회장은 발로 뛰는 리더십을 보일 것을 다짐했다. 이재덕 목사는 “보내주신 지지에 감사를 드린다. 서로 대화하며 상생하는 교협 회원교회들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동안 뉴욕교계의 다방면에서 봉사한 경험을 살려 섬기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재정감사보고에 따르면 지난 회기 총수입은 386,247불, 총 지출은 365,295불

## 시티호프 '봉사자·후원자의 밤' 열고 감사 돌려



시티호프커뮤니티 '봉사자·후원자의 밤'이 열리고 있다. 클락스톤 지역 난민사역단체인 시티호프커뮤니티(대표 김로리)에서 그 동안 묵묵히 섬김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 준 분들을 위해 '봉사자·후원자의 밤'을 지난 토요일(1일) 열었다. 잔스크리칸인교회(담임 이승훈 목사)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이승훈 목사의 설교, 봉사자 강경덕 집사의 간증, 이만 알스날, 오자, 윤차의 간증, 어린이 특송, 태권도 시범, 김지선(Lori Kim) 선교사의 사역 간증 등으로 이어져 다시 한번 주변을 훈훈하게 했다. 사회를 맡은 조규영 집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난민들을 섬기면서 우리가 찾은 삶의 의미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다. 또 시티호프 사역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리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2010년 창립된 시티호프커뮤니티는 지금까지 250가정을 사랑으로 섬겼으며, 4개의 난민교회에 5개의 밴을 기증했고, 난민교회 사역이 자리잡을 때까지 도왔으며, 어린이 교회, 가정교회, 방과 후 학교, 제자훈련반, 가정사역/토요일 어학습, 성인영어반, 중고가게 등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다. 이승훈 목사는 레위기 19장 9-10절을 본문으로 삼아 “함께 살아가는 공간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사용하고 배풀고 나누는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남은 곡식이 있어도 다 거둬들이지 말라고 하신다. 바로 과부와 고아들을 위한 배려다. 나눔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종합해 보면 30% 정도를 나누고 배풀면 더 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또는 목회의 현장에서 가능하면 십 분의 삼은 나누려고 한다. 여기 모인 분들은 바로 그렇게 자신의 삶을 나눔으로 구원의 현장에 계신 분들이다. 마음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물질도 나누어 한다. 함께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여 기쁨 안에서 은혜 가운데 나눌 때 복음과 함께하는 축복의 손길이 될 것이다”라고 격려했다. 한편, 시티호프커뮤니티 사역에 대한 문의는 www.cityhopecommunity.org 혹은 김지선 대표 전화 678-879-2729로 하면 된다.

신디김 기자

33주년 맞은 베다니장로교회, 선교부흥회 및 임직식 가져



베다니장로교회가 33주년을 맞이해 임직자를 세웠다.

창립 33주년을 맞이한 베다니장로교회(담임 최병호 목사)가 지난 2일(주일) 오후 6시 '제직 안수 및 임직식'을 가졌다.

이날 임직식에서는 정정숙 장로와 박인자 집사가 새로운 일꾼으로 세워졌으며 교회가 속한 남부한미교회 관계자들과 원근각처에서 발걸음 한 축하객들이 모여 기쁨을 나눴다.

이날 예배는 최병호 목사의 사회 아래 기도(조진영 목사), 성경봉독(김대왕 목사), 설교(김삼영 목사), 문답과 서약, 안수례, 선포, 임직패 증정, 권면(이내용 목사, 남윤상 목사, 박대웅 목사), 축사(신정인 목사, 권영갑 목사), 축가(안드레/조이플 중창단), 답사, 축도(임낙길 목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인내하는 자'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남부한미교회 총무 김삼영 목사는 야고보서 5장에 기록된 "인내의 3가지 모델을 보고 배우라. 씨를 뿌리고 열매 맺기까지 참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농부의 인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선지자의 인내,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끝까지 참고 인내한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강조했다.

장로에게 권면의 말을 전한 이내용 목사(그라랜지한인장로교회)는 "믿음과 충성은 헬라어로 같은 어근을 쓴다. 내

면의 믿음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충성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청지기의 마음을 갖고 충성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며 '추수 때에 제공되는 열을 뽕수처럼 마음의 시련함을 느끼시게 살아가라'고 당부했다.

집사에게 권면의 말을 전한 남윤상 목사(사바나장로교회)는 "교회와 사람에게 인정받아 임직 받는 것을 축하한다. 그 인정이 계속될 수 있길 기도한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는가'이다. 기도와 말씀, 정결에 힘쓰고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라"고 말했다.

교인들에게 권면의 말을 전한 박대웅 목사(예수소망교회)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질서대로 지으셨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쉽게 내 벨은 말에 삼쳐받는 경우가 있다. 교회에 일하는 이들이 있다면 좋을 말을 해 달라. 순종하고 격려함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라"고 말했다.

한편, 베다니장로교회는 임직식을 앞둔 10월 31일(금)부터 11월 2일(주일) 오전까지 교회 30주년 선교사로 파송된 권영갑 은두라스 선교사를 초청해 선교부흥회를 갖기도 했다. 앤더슨 김 기자

타코마제일침례교회 창립 39주년 기념 가을 감사음악회 성료



타코마제일침례교회 창립 39주년 기념 가을 감사음악회에 나온 음악인들

11월 2일(주일) 오후 5시, 타코마제일침례교회(담임 최성은 목사)에서 교인들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창립 39주년 기념 가을 감사음악회를 개최했다.

가을 감사음악회는 바리톤 이성주, 소프라노 신연경, 소프라노 권수현, 플룻 이혜주, 피아노 임반석, 피아노 오르간 홍차은, 피아노 조혜경, 피아노 오혜상 등 시애틀, 타코마 지역에서 활동하는 실력과 음악인들이 출연했다.

금번 음악회의 취지에 대하여 조연형

전도사는 "창립 39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 안에 기쁨이 되고, 커뮤니티 안에 있는 사람들과 음악을 통해 좋은 시간을 나누기 위함"이라고 설명을 하였다.

또한 행사를 통해 "이민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쉽고 즐거움을 주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여 전도와 선교에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O.C./앨버틴 지역

<p><b>오병익 담임목사</b></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2: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p> <p><b>건강한 교회</b>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교회</p> <p>7037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1 T.(714) 801-1625 kpcadavid@yahoo.com</p>	<p>1부예배 오전 7:20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00 한여름(성탄절) 오후 2:00 새벽기도회 매일 5:30</p> <p>금요찬양 오후 7:30 영어인양회 오전 11:00 영어장년부 오전 9:00, 11:00 새벽기도회 매일 5:30</p> <p><b>김영길 담임목사</b></p> <p><b>감사한인교회</b> 사랑받고 사명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p> <p>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영 유아부 오전 11:00 유 초등부 오전 11:00</p> <p>중고등부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EM대학부 오후 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p> <p><b>민경엽 담임목사</b></p> <p><b>나침반 교회</b> 모이는 교회 헤어지는 교회</p> <p>1200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amp; Puente)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ns.org</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p> <p>3부예배 오전 11:00 4부(청년)예배 오후 1:00</p> <p><b>남가주동신교회</b>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p> <p>2505 Yorba Linda Bl.,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p>
<p>주일예배 1부 오전 8:30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p> <p>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토 새벽 6:20</p> <p><b>고현중 담임목사</b></p> <p><b>디사이플교회</b></p> <p>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p>	<p>1부 주일예배 오전 8:00 2부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3부 주일예배 오후 2:30</p> <p>새벽예배 오전 6:00 분당 수요기도 저녁 8:00 분당 금요공부 저녁 8:00 분당</p> <p><b>허규암 담임목사</b></p> <p><b>놀익연합감리교회</b>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는 교회</p> <p>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562)802-4959 C.(714)308-7037 / usa8291@gmail.com</p>
<p>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30</p> <p>금요 Alpha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p> <p><b>이서 담임목사</b></p> <p><b>미주비전교회</b>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p> <p>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 92802 T. (714) 999-9900 / visioncc.org</p>	<p>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p> <p>4부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p> <p><b>김한요 담임목사</b></p> <p><b>베델한인교회</b>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p> <p>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p>
<p>주일예배 오전 8시, 오전 10시 화요일 오후 7시(계시록) 금요일 오후 7시(계시록 7교회)</p> <p><b>남상국 담임목사</b></p> <p><b>오픈바이블교회</b> OPEN BIBLE CHURCH</p> <p>800 S.Harbor Blvd. #220, Anaheim, CA 92805 (Harbor + South) T. (949) 285-0619 / E. obchurch7@gmail.com</p>	<p>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p> <p>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주요예배 오전 6:00</p> <p><b>신원규 담임목사</b></p> <p><b>삼성장로교회</b> 주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성도의 삶 선교와 구제의 삶으로 실천</p> <p>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www.socalsamsungchurch.org</p>
<p>주일예배 장년 1부 9:00am 장년 2부 11:00am Youth 예배 12:15pm Children 11:00am</p> <p>EM 1:30pm 새벽기도 화-금 5:30am 토 6:00am</p> <p><b>정철 담임목사</b></p> <p><b>새생명한인교회</b></p> <p>15 Cloddard, Irvine CA 92618 T.(949)341-0022 / (949)398-7303 www.newlifekpc.org</p>	<p>주일예배 오전 10:45 EM/영어예배 오후 12:45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p> <p>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p> <p><b>김민재 담임목사</b></p> <p><b>예친교회</b>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p> <p>955 W Imperial Hwy Brea, CA 92821 ECCU Auditorium (Worship Center) T. (714) 788-3677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외 사무실)</p>
<p>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p> <p>수요일예배 오후 7:30 중등부 오전 9:15 고등부 오전 11:30 한어부 오전 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p> <p><b>권혁빈 담임목사</b></p> <p><b>앨버틴온누리교회</b></p> <p>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p>	<p>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p> <p>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p> <p><b>최상준 담임목사</b></p> <p><b>앨버틴 한민음교회</b>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p> <p>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 769-9628</p>
<p>주일 성강이 예배 : 오전 9:00am 주일 한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p> <p>금요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pm 새벽기도 : 월-금요일 오전 5:30am 토요일 오전 6:00am</p> <p><b>임경남 담임목사</b></p> <p><b>토기장이교회</b></p> <p>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 info@Pottersccc.com</p>	<p>주일: 10:30 AM Sunday School (All ages) 11:45 AM Adult Service 1:30 PM English Service 금요일일 : 7:20 PM(성경 66권책별성경공부)</p> <p>새벽예배 : 5:30 AM (화-금) 6:30 AM (토)</p> <p><b>이승필 담임목사</b></p> <p><b>새로운 교회</b>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을 받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온전하심을 이루는 교회입니다.</p> <p>12432 9th St. Garden Grove, CA 92844 Mobile: (949) 933-7242 Saerounchurchus@gmail.com</p>
<p>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p> <p>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유년부 중등부예배 오전 11:30 유년부 고등부예배 오전 11:30 영어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p> <p><b>우대권 담임목사</b></p> <p><b>영광빛복음교회</b>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p> <p>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p>	<p>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p> <p>새벽예배 월-금 오전 6:30 토요일 오전 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8:00</p> <p><b>한기홍 담임목사</b></p> <p><b>은혜한인교회</b> 행복한 교회 상급학교는 세계선교를 미루지 않는 교회</p> <p>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찬양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p> <p>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p> <p><b>남성수 담임목사</b></p> <p><b>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b>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p> <p>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p>	<p>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후 2:30 월요 선교학교 오후 7:30 월요 중보예배 오후 7:30</p> <p>수요 예배 오후 7:30 목요 성경학교 오후 7:30 금요침야예배 오후 8:00 토요 EM예배 오후 7:30</p> <p><b>앤드류 김 담임목사</b></p> <p><b>UBM교회</b>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교회</p> <p>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5-6402,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p>
<p>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3부 : 오후 1:30</p> <p>수요기도회 : 오후 8:00 새벽기도 : 오전 5:45(월-금)</p> <p><b>주혁로 담임목사</b></p> <p><b>주님의 빛 교회</b></p> <p>7651 5th St, Buena Park, CA 90621 www.lordlight.org T. (562) 896-9191, (714) 670-6700</p>	<p>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p> <p><b>김철민 장로</b></p> <p><b>CMF선교회</b>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p> <p>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p>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임주자화제\$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저녁제공 케이터링 tv 초고속인터넷,냉장고,세탁장,교통편리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3가+옥스퍼드)

T.213.327.4710

미국 산삼 공인딜러  
Permit Number 90-293202  
200명의 미국, 인디언 심마니 협력 업체

100% 미국 야생 산삼

HQ  
山  
蔘

가을 햇산삼이  
나왔어요

근 뿌리 근 뿌리  
정성스럽게 캐습니다!

미국 야생 산삼  
1 파운드 = \$800~\$1,300  
+ 특별 선물 무료 증정  
HQ구연산과 HQ천연미네랄 회색소금(\$200-\$300상당)



예쁜 선물 상자도 있습니다.



산삼의 2차 가격파괴,  
산삼의 대중화를 선도하고 정착시킨 정직한 업체입니다.  
산삼의 품질은 최고로 가격은 최저로 해마다 지켜드리겠습니다.

**강력한 면역력 · 자연치유력**  
**타 업소보다 2-3배 싼 가격**

NY, WI, VA, NC주 최상급 북부 최상급 효능 햇산삼이 매주 두번씩 들어옵니다.  
주정부 발행 진품 인증서 첨부된 100% 살아있는 야생 산삼입니다.  
채취시 흙이 묻어있는 그대로 들여와 한 달 내에 전량 판매됩니다.  
인삼, 홍삼이 안맞는 분들도 미국 산삼은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산삼복용법은 씹어서나 달여서 드시도록 상세 소책자를 드립니다.

### 산삼의 25가지 효능

임상실험 30년 노하우를 전수받아 건강상태에 따라 각각 상담해 드립니다

- 1.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해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능
- 2. 당뇨에 효과가 탁월함을 임상실험으로 입증되었음
- 3. 심장을 강하게 하며 심매계의 약리작용을 강화한다
- 4. 위장병 원인이 되는 위산과 펩신의 분비물을 억제함
- 5. 미국 산삼은 고혈압, 저혈압의 증세를 정상화 시킴
- 6. 알레르기성 체질을 개선시킨다(비염치료 포함)
- 7. 정력을 증강시키며 남녀 불임환자에게 효과가 좋다
- 8. 각종 간질(간염, 간경변, 간암 등)회복에 탁월함
- 9. 성인병 예방은 물론 갱년기 장애 해소에 탁월함
- 10. 두뇌 신경세포를 촉진시켜서 머리가 총명해진다
- 11. 기억력을 향상시켜주며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능
- 12. 망막혈관을 세동맥을 선명하게 해 눈을 맑게 한다
- 13.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며 스트레스를 없애준다
- 14. 루머티즘, 만성관절염 치료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
- 15. 만성피로나 하체무력감에 매우 뛰어난 약성효과
- 16. 체내 독기 제거로 피부를 깨끗하며 종기를 식혀줌
- 17. 노화물질의 축적을 억제해 노화방지효능이 크다
- 18. 생명력, 저항력이 증가해 알콜중독과 숙취에 탁월
- 19. 부인병(냉증, 월경과다, 자궁출혈)에 탁월한 효능
- 20. 폐기능 등 호흡기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탁월함
- 21. 신경과민, 신경쇠약과 불면증에 효능이 있다
- 22. 모든 질병의 빠른 회복과 원기를 보하고 돌아준다
- 23. 추위를 타지 않으며 손과 발이 따뜻해진다
- 24. 면역력을 극대화시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탁월함
- 25. 성인병 예방은 물론 갱년기 장애 해소에 탁월함

건강상담 및 문의: Dr. 최



전속모델 탤런트 박영지

안전한 인터넷 홈쇼핑 [www.KBSmall.com](http://www.KBSmall.com)

HQ헬스 / HQ산삼 / HQ 바이오텍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 직영점 (562)760-2359

LA 본점 :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세리토스직영점: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90701



월-금: 10am-7pm, 토:10am-5pm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세리토스 직영점



LA 본점

# “동성애 과연 타고난 것일까?”

## 성과학연구협회 제1회 학술세미나 개최 ... 동성애 관련 논문 발표



길원평 교수

성과학연구협회 제1회 학술세미나가 '건강하고 행복한 성문화를 위한 학술적 탐구'라는 주제로 11월 1일 오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행정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동성애 타고난 것일까?'를 주제로 발제한 길원평 교수(부산대 자연대학 교수)는 "선천성에 관련된 과학적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1990년대 초반에 동성애의 선천성을 뒷받침하는 여러 논문들이 발표되었지만, 10년 쯤 후에 그러한 논문들이 잘못되었음이 밝혀졌다"며 "유전자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동성애자인 해머는 1993년에 40가계의 X염색체를 분석하여 학술지 Science에 동성애 성향이 유전자군(Xq28)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발표하였으며, 서구 언론은 동성애 유전자를 발견하였다고大肆 떠벌렸다. 하지만 라이스 등은 1999년에 학술지 Science에 Xq28에 존재하는 네 개의 표지유전자를 분석하여 동성애와 관련이 없음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2005년에 해머를 포함한 연구팀이 146가계에 속한 456명을 대상으로 전체 계보를 조사하여 동성애 성향과 Xq28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밝혔다"며 "그렇지만 7번, 8번, 10번 염색체에 동성애와 관련이 있는 유전자가 존재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2010년에 라마고파란 등은 55가계의 112명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전체 계보를 조사한 결과, 7번, 8번, 10번 염색체에서 동성애 관련 유전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따라서 동성애를 유발하는 유전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모두 부정되었다"고 했다.

또 "두뇌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동성애자인 리베이는 1991년

에 학술지 Science에 시상하부의 INAH 3 크기가 남성 동성애자는 남성 이성애자보다 작으므로, 즉 여성과 비슷하므로 INAH 3이 동성애와 관련이 있다는 발표를 했다"며 "이 연구 결과의 발표는 서구의 많은 사람들에게 동성애자들은 동성애를 하게 만드는 두뇌를 갖고 태어난다는 오해를 갖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2001년에 바인 등이 조사한 결과, 남성 동성애자의 INAH 3 크기가 남성 이성애자에 비해 작았지만, INAH 3 내에 있는 뉴런의 개수를 조사해 보니 남성 동성애자가 남성 이성애자와 비슷하였으며 여성에 비해 훨씬 많았다"며 "바인 등은 INAH 3의 크기가 작은 이유는 출생 후의 신경망 감소로 추론하였다. 또는 에이즈 감염 또는 마약 남용의 결과로 INAH 3의 크기가 감소했을 수도 있다. 따라서 리베이가 INAH 3의 크기만 보고 INAH 3가 동성애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론한 것은 잘못이라고 바인 등은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또 "1992년에 알렌 등은 양쪽 뇌를 연결하는 전교련의 단면이 여자가 남자보다 크고, 남성 동성애자가 남성 이성애자보다 크다고 발표하였지만, 2002년에 라스코 등은 120명의 전교련 단면을 조사하여 남녀와 성적 지향에 따른 전교련 단면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죽은 사람의 두뇌를 조사하여 전시상하부의 간질핵, 전교련 등에서 동성애자와 이성애자 사이에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으므로, 두뇌영상 촬영기술을 사용해도 동성애자와 이성애자의 차이를 발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그는 "1990년대에 동성애자의 두뇌가 반대의 성(性)을 닮았다는 논문들이 발표되었지만, 약 10년이 흐른 후에는 그러한 논문의 오류가 밝혀졌다"며 "그런데 불행하게도 잘못되었음이 밝혀지는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서구 사회에 동성애자들은 동성애를 하게 만드는 두뇌를 갖고 태어난다는 오해가 많이 확산되었다"고 했다.

또 "태아기의 호르몬이 동성애 형성에 미친 영향을 알기 위해 태아기에 많은 양의 호르몬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을 살펴보면, 합성 여성 호르몬의 일종인 디에틸stil베스트롤을 대량으로 투여 받았던 임신부의 자녀들이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일반인과 차이가 없었다"며 "외부 성기의 모양이 남성처럼

보일 정도로 태아기에 과다하게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는 CAH 질환을 가진 여성이 동성애 성향을 나타낼 확률이 일반 여성에 비해 크게 높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태아기에 많은 양의 호르몬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동성애자가 되는 확률이 일반인에 비하여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태아기의 호르몬이 동성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잘 나타낸다"며 "태어났을 때 성 기형이 나타날 정도로 태아기에 많은 양의 호르몬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도 대다수가 동성애자가 되지 않는데, 정상적인 성 기관을 가진 일반적인 동성애자들이 태아기의 호르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동성애자가 되었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또 "2000년에 윌리엄 등이 여성 동성애자의 손가락 길이의 비는 남성 쪽으로 가까워지는 결과를 토대로, 여성 동성애가 태아기 호르몬의 영향을 받고 형성되는 것으로 추론하였다"며 "어떤 손가락 길이의 비를 가진 여성 집단에서도 대다수가 이성애자라는 점과 여성 이성애자와 여성 동성애자의 손가락 길이의 분포가 거의 겹친다는 사실로부터, 태아기의 호르몬이 여성 동성애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동성애자가 되게 할 만큼의 강력한 효과를 주지 않음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이어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증거로서 형이 많을수록 남동생이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제시되는데, 이러한 첫 번째 남자 아기를 가졌을 때 어머니 몸에 생겨진 남성에 대한 항체가 두 번째 남자 태아의 뇌를 공격하여 동성애 성향을 갖게 만든다는 논리는, 남성에 대한 면역반응이 가장 남성적인 인체 기관인 고환을 공격하지 않으며, 항체가 태아의 뇌를 공격했다면 읽고 쓰는 것에 대한 학습장애도 같이 나타나야 하는데, 남성 동성애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말을 더 잘하며 학습 장애가 없다"며 "따라서 형 효과를 생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어머니의 면역 반응 이론은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했다.

또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비율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1952년에 칼만이 교도소와 정신병원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비율은 100%이었고, 이란성 쌍둥이의 동

성애 일치비율은 대략 15%이었다. 1991년과 1993년에 베일리 등이 한 조사에서, 남성의 경우에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비율은 52%, 이란성 쌍둥이는 22%, 여성의 경우에 일란성 쌍둥이는 48%, 이란성 쌍둥이는 16%이었다"며 "그런데 이 결과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언론 매체를 통하여 조사 대상을 모집하였으므로, 동성애자인 쌍둥이들이 의도적으로 많이 응모하여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비율을 증가하도록 만들었다"고 했다.

그는 "2000년 이후에 대규모로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비율을 세 번 조사하였다. 2000년에 베일리 등이 호주 3,78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비율이 남성은 11.1%이고 여성은 13.6%이었으며, 2000년에 캔들러 등이 미국의 1,512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18.8%이었다. 2010년에 랑스트롬 등이 스웨덴의 7,6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비율이 남성은 9.9%이고, 여성은 12.1%이었다"며 "따라서 대규모로 이루어진 세 번의 조사를 종합하여 볼 때에,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비율은 대략 10% 내외라고 볼 수 있으며, 2000년 이전에 이루어졌던 소규모 설문조사 결과들이 얼마나 과장되고 왜곡되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길원평 교수는 "실제로 1991년에 남성 동성애자의 두뇌가 여성과 비슷하다는 논문을 발표한 리베이와 1993년에 X염색체 위의 Xq28이 남성 동성애와 관련이 있다는 논문을 발표한 해머는 동성애자이다"며 "1990년 초반에 동성애는 타고 난 것이라고 오해하게 만드는 논문이 쏟아져 나왔을 때에, 일반인들은 그 논문 결과들을 순수하게 믿고 받아들여 그 결과 동성애를 옹호하는 학자들과 단체들의 의도대로 서구의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으로 오해하였고, 그러한 오해는 법, 정책, 교육에 반영되었다"며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으로 오해됨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대표적인 법이 차별금지법이다"고 했다.

그는 "대다수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어 자신의 의지로는 어쩔 수 없는 것들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동성애가 타고난 것으로 오해됨으로써 차별금지법에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되었고, 성별, 인종 등과 동등한 수준으로 동성애를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정상으로 공인하고 공권력에 의해 정상으로 인식하도록 강요하였고, 동성애를 비도덕적이라고 보는 사람들을 처벌하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의 문헌과 인터넷의 정보들을 보면 동성애는 타고난 것으로 인식하도록 의도적으로 편집되었음을 발견한다. 몇 가지 예를 들면, 한국 인터넷에서는 동성애에 관련된 유전자 연구에 대해서 X염색체의 Xq28과 남성 동성애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1993년 해머의 연구 결과를 동성애의 유전 성향을 나타내는 증거로 인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1999년에 라이스 등이 표지 유전자를 조사함으로써 Xq28과 동성애 사이의 상관관계를 발견하지 못한 결과, 2005년에 해머를 포함한 연구팀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전체 계보를 조사했을 때에 Xq28과 동성애 사이의 상관관계를 발견하지 못한 결과, 그리고 2010년에 전체 계보를 조사하여 동성애 관련 유전자를 발견하지 못한 결과들이 한국 인터넷에는 거의 소개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한 "동성애에 관련된 두뇌 연구에 대해서, 1991년 리베이의 연구 결과가 동성애의 선천성을 나타내는 증거로서 국내 문헌에 많이 인용됐지만, 리베이 논문의 문제점과 연구 결과를 반박한 2001년 바인 등의 연구 결과는 거의 소개하지 않음으로써 일반인들에게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라는 왜곡된 정보를 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동성애에 관련된 쌍둥이 연구에 대해서, 1991년 베일리 등의 조사결과가 동성애가 유전에 의한 선천적인 것을 나타내는 증거로서 많이 인용되고 있다. 반면에 1991년의 조사결과가 과장되었음을 나타내는 2000년 이후에 이루어진 세 번의 대규모 설문조사 결과는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러한 편향된 온라인의 정보들이 한국 국민들로 하여금 동성애는 유전이며 선천적이라는 오해를 갖게 만들었고, 왜곡된 과학적 자료에 의해 서구의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타고난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던 것과 같은 전철을 밟은 것 같아 매우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오상아 기자

# 공 고

## 음악 저작권 침해는 불법입니다!

미국 및 캐나다 지역의 한국음악 및 교회음악 (CCM)저작권 사용에 따른 징수 권리를 가진 퍼블리싱 컴패니 (주)엘로힘 이피에프 USA는 2014년 10월 15일을 기준으로 미국 및 캐나다 지역의 한국 음악 및 교회음악을 사용하는 모든 교회들을 대상으로 자진 등록을 공고합니다.

1. 교회에서 찬양을 사용할 시 이제는 저작료를 내셔야 합니다. 안 내면 불법입니다.
2. 교회에서 사용 되는 복음성가곡은 저희 Elohim EPF USA에 내시면 됩니다.
3. 저작료에 대한 것은 웹사이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Elohim EPF USA는 자진 등록 기간에 등록된 교회에 한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입니다.

— 공고 내용 —

등록 대상: 한국음악 및 교회음악(CCM)을 사용 하는 모든 교회

등록 방법: 웹사이트 등록

<https://elohimepfusa.com>

Tel. (213)736-0073

문의처: 문의 사항은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접수합니다.

Independent Music Publishing and Licensing Company

Tel. (213)736-0073

<https://elohimepfusa.com>

미주한인교회와 모든 목회자들에게 드리는 부탁:

11월 2일 또는 9일을 미국을 위한 기도 주일로 지켜주십시오!

참여 방법

- 1 다민족연합기도회 홍보 동영상을 보여주십시오. (각 교회로 DVD발송하였습니다. 없을 경우, google에서 "11/11/14 다민족 연합 기도회 홍보영상"을 찾으십시오)
- 2 주보에 홍보지를 넣어 주시거나 실어주십시오.
- 3 교회적으로 참여를 독려해주시고, 교회차량도 제공 부탁드립니다. 주차비가 \$16.00 이오니 carpool을 권장합니다.

A Line in the Sand 11.11.2014

부흥만이 살길입니다.

캘리포니아와 미국의 영적 부흥과 대각성을 위한 다민족 연합기도회

HONDA Center

1:00 PM - 9:00 PM

2695 E. Katella Ave., Anaheim, CA 92806

www.aLineintheSandConference.com

이 나라가 점점 하나님과 말씀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위해 비상하게 회개하여 부르짖을 때입니다. 미국사에 보면 국가적 위기 때마다 교회들이 역대하 7:14 약속을 붙들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고 그 때마다 하나님은 부흥을 보내 주셔서 나라를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한인크리스천들이여, 모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모세의 심장으로 마음을 찢으며 이 땅의 부흥을 위해 눈물로 간구합시다.

한인 인도 기도시간: 11월 11일 (화) 오후 6:30-8:30

주 최: A Line in the Sand (11/11/14 기도회 · 장소: 애나하임 혼다센터)  
 한인주최: 남가주교회협의회, OC교회협의회, 남가주목사회, OC목사회, 남가주 각지역 교협 또는 목사회, 미주성시화운동본부, KCCC, 미주복음방송, 남가주 청년사역자연합  
 한인주관: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미기총), JAMA

문의: 323-933-4055, 626-372-5151, 714-336-4378

11/11/14 Honda Center 다민족 연합기도회 대회조직 (가나다순)

- 고문: 김영길, 박성근, 박희민, 손인식, 송정명, 이정근, 진유철, 한기형
- 대표대회장: 한기홍 (미기총 대표회장)
- 공동대회장: 권혁빈, 김광수, 김인식, 노진걸, 민경엽, 민종기, 박성규, 박용덕, 박효우, 신승훈, 엄영민, 이 서, 조종근, 한의준
- 준비위원장: 김순영
- 지역준비위원장: 김병용(South Bay), 김영찬(OC), 박병섭(SD), 박충길(인랜드), 서종윤(Valley), 오정택(벤츄라), 전병주(동부), 정종윤(LA), 허귀암(중부)
- 총무: 김기동(OC)
- 부총무: 정우성(LA)
- 실행위원회: 강영수(홍보), 김경일(선교사 동원), 김대섭(진행), 김영찬/허귀암(동원), 민승기(재정), 송규식(음악), 신현철(미디어/언론), 윤덕곤(기획/의전), 이호우(영상)
- 청년실행위원: 김대일, 김더글라스, 김정우, 박신웅, 배진, 설성훈, 정기정

분과 위원회

- 대외협력위원장: 전두승
- 중보기도위원장: 전해숙 (위원: 배수은, 서요한, 신소피아, 오덕선, 정인호)
- 기획위원장: 이성우
- 홍보위원장: 조명환
- 찬양위원장: 박종술
- 영상기록위원장: 김승욱
- 안내위원장: 이영복(KCCC)
- 재정위원장: 이동양 장로(미기총)
- 평신도위원장: 김종대 장로(OC장로회), 심복수 장로(OC 전도연합회)
- 여성위원장: 윤우경(OC 전도연합회)

기도인도강사단 (가나다순)

권혁빈, 김기동, 김바울, 김영길, 김인식, 김철민, 남성수, 민경엽, 박성규, 박용덕, 박희민, 정기정, 정영희, 정장수, 진유철, 한기홍, Stephen Chong 외 대학생 3명



\*\*대회본부 사정으로 다민족 기도대회 시작 시간이 10시에서 오후 1시로 최종확정되었습니다.

후원: 크리스천헤럴드, 크리스천위클리, 미주크리스천신문, 크리스천비전, 크리스천투데이, 기독교일보  
 CGN TV, CTS, 미주복음방송, CBS 기독교 FM 방송, 미주기독교방송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요엘 2:28



HONDA Center

# “한인교회에 EM 사역자 부족 문제, 예비군목을 활용하면?”

저는 아주 젊은, 전도사 기간을 다 합쳐도 사역에 임한지 10년도 안된 30대 중반의 목사입니다. 현재 US Army Reserve Chaplain(군목), Hospital Chaplain(원목), 또 로컬교회에서 EM 목사로 설교 사역을 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신학생 시절부터 교회보다는 기관 사역, 채플린 사역을 꾸꾸며 공부를 해 오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로 기관 사역과 교회 사역을 겸하며 지난 4년 정도를 지내 왔습니다. 짧지만 남들과 다른 특별한 사역길을 걸어왔기에, 로컬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께 EM 사역자들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될까 하여 의견을 내어 봅니다.

대부분의 교회, 특히 100명이 채 안 모이는 소형교회에서는 EM 사역자를 구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왔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EM 사역자들은 1.5세, 2세로서, 1세대들과 교회관, 신앙관이 다르다는 점, 그리고 요새 EM 사역자들은 대형교회에서 차라리 인턴으로 있으며 여러가지 다른 사역 기회를 경험하고 싶어한다는 점, 그리고 대형교회와 소형교회의 사례비의 차이 때문이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하기에 EM 사역자들이 큰 교회로 몰려, 작은 교회들은 EM 사역자를 찾기 힘들고, 최근에는 급여와 베네핏이 보장된 미 육해공군의 현역 채플린으로 사역자를 찾는 EM 사역자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자신 또한 신학교에서 공부하며 기관 사역, 채플린 사역을 꾸꾸왔던 것도 이와 같은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로컬교회에서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과 젊은이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울 EM 사역자들이 모자란 것은 이상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자면, US Military Reserve Chaplain, 미군 예

비군목들을 교회의 EM 사역자들로 세우시면 됩니다.

일단 한국의 예비군과 미국의 예비군의 차이를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신체건강한 모든 젊은이들이 군생활을 2년 정도한 후, 퇴역, 예비군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처음 자원입대 때부터 현역으로 갈 것인지 예비군(Reserve)으로 갈 것인지를 모병관과 결정한 후 자원한 모든 병사들이 똑같은 훈련을 거친 뒤에, 자대배치를 현역 부대로 받든지 또는 예비군 부대로 받게 됩니다. 현역의 경우 군에서 필요로 하는 곳으로 무작위로 보내지만, 예비군은 병사의 본거처로(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전투훈련을 마치고 다시 본인의 거주지로 돌아온 후, 집근처의 예비군 부대에서 한 달에 한 주말(토요일과 주일), 그리고 일년에 2주~4주(보통 8월 여름) 훈련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예비군은 대통령과 미국 의회를 통하여 예비군 신분에서 현역 신분으로 바뀌게 되어 보통 1년 정도 파병을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군보다는 상비군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리고 파병은 5년에 일년 로테이션으로, 한 번 파병을 다녀오면, 4년 동안은 다시 못 나가게 됩니다.

제가 군목 생활을 하며 많은 한인 군목분들이 로컬교회에서 사역을 찾지 못하고, 일반 직장에서 일을 한다든가, 청소, 트럭운전, 웨이터 등등 교회 사역과는 동떨어진 일을 하시는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그분들에게 왜 교회에서 사역을 하지 못하냐고 물으면 심중팔구 “어느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교회를 빠져야 하는데 써 주겠냐?”고 대답합니다.

물론, 한 달에 한 번 주일을 빠지는 것은 큰일입니다. 한 달의



조셉 최 목사  
미 예비군목대위

20%~25%입니다. 사역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1) 군 채플린들은 일반 목회에서 얻을 수 없는 경험을 교회에 가지고 옵니다: 군목들은 자살방지 프로그램, 가족 카운셀링 훈련, 약물 남용 카운셀링 등등 일반 교회에서는 흔하지 않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능력들을 통하여 교회의 EM 학생, 젊은이들을 잘 이끌 수 있습니다.

2) 사역자의 베네핏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군 채플린들은 군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 생명보험, 치과보험, 연금 등등의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군목을 정빙하실 경우, 교회에서 사역자들의 베네핏 지원을 위한 추가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3) 사회와 학교들에 팽배해 있는 다원주의적인 사상에 대해 군목들은 준비되어 있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흔히들 “모든 종교가 다 같은 길로 다다른다”, “예수, 부처, 마호메트가 결국에는 다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등의 다원주의적인 사상에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젖어 있습니다. 군목들은 이러한 다원주의적인 환경에서 남을 배려하되, 본인의 믿음을 지키는 교육을 받습니다. 군 자체가 다원주의적인 환경이기에 군목들은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에 수긍하는 것이 아닌, 대처하는 방법을

잘 압니다.

4) 군목을 교회에서 사역자로 세움으로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교회에서 따르며, 군목을 통하여 교회가 선교에 동참하게 됩니다: 많은 군목들이 군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이들에게 구원의 희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군에서 Ministry of Presence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군목은 병사들과 거리를 뒤야 하는 다른 장교들과는 달리 그들 사이에서 같이 어울리며 군생활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병사도 군목의 따뜻한 한 마디에 눈물을 흘리고, 그 누구에게도 기도를 받은 적이 없던 병사가 군목에게 기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병사에게 어려운 일이나 가정사가 생겼을 경우, 지휘관을 통해 군목이 병사를 심적, 영적으로 돕게 되며, 또한 카운셀러로서 병사와 깊은 영혼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교회 내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사역들이 아니겠습니까? 군목의 사역현장이 선교현장이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군목을 교회에서 사역자로 세울 때, 군목과 함께 지역사회를 떠나는 선교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주말에 부대에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1) 모든 군목들이 다 같은 주말에 부대로 출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료 군목들끼리 팀을 만들어 서로 출근하지 않는 주일에는 대신 동료 군목 교회의 설교와 예배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2) 군목이 한 달에 한 번 부대에 출근해야 할 때, 교회에서 KM과 EM이 함께 하는 통합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

다. 소형교회들일수록 이러한 Joint Worship Service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 생각됩니다.

3) 경우에 따라서 군목들은 지휘관의 허락 하에 주일날 2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예배를 인도하고 다시 부대에 출근할 수도 있습니다.

4) 파병 문제가 있긴 합니다. 상비군 군목과 EM 사역을 겸하는 목사가 파병을 가게 되면 교회에서는 난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적은 대로, 매 5년마다 1년 파병을 다녀오기 때문에, 그 일년 동안 교회사역은 어찌되나 궁급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시면 4년은 교회에서 EM 사역에 문제 없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EM 사역자들이 한 교회에서 평균 1~2년 후에 사임을 한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4년은 긴 시간입니다.

다수의 이중언어가 가능한 EM 사역자들이 대형교회를 선호하며, 로컬교회에 몸담기를 꺼려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1세대와 1.5, 2세대의 문화 차이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로컬교회와 EM 사역자들, 상비군 군목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도움이될 기도합니다.

▲ 조셉 최 목사는 가든그로브의 미 예비군 다기능의료대대 군목 대위 이면서 토랜스에 있는 프로비던스 리틀 컴퍼니 오브 메디컬센터의 선임 원목으로 섬기고 있다. 2011년부터 군목, 원목 사역을 하면서 동시에 성화장로교회의 EM 목사로서 섬기고 있다. 그는 UC엘바인과 탈봇신학교를 졸업했으며 현재 탈봇신학교에서 D.Min. 과정 중이다. ECA(Evangelical Church Alliance) 교단 소속 목사이며 Association of Professional Chaplain로부터 그 자격을 인증받은 군목이기도 하다.

## Passion



엄영민 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세계 102개 비영어권 국가에 사는 4만 명을 대상으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를 표현해 보라고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1위

Mother(어머니), 2위 Passion(열정), 3위 Smile(미소), 4위 love(사랑) 순입니다. 이 가운데 “아, 그렇구나” 하고 대부분 공감은 가지지만 얼른 이해가 가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Passion이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해가 갑니다. 제가 살아본 바로는 일의 성과,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행복과 불행의 차이가 이 단어에서 갈라지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흔히 앞서는 것과 뒤서는 것, 잘 나가는 것과 뒤쳐짐은 2%의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그것은 열

정의 차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축구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 중에 2%인 열정이 앞선 선수는 경기 내내 공을 몰고 다니고 2%인 열정이 부족한 선수는 경기 내내 간발의 차로 공을 따라만 다닌다고 합니다.

사무엘하 6장에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그날, 다윗은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여호와와 궤를 멘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그의 부인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하며 업신여겼습니다. 이때 다윗이 분명한 어조로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시나를 여호와와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하고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의 열정을 좋아하시고 그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서열이나 직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부른 이유는 열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남보다 한 발 더 앞서 나서는 그의 열정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열정을 더한다면 조금 더 앞서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 입으면 허리문제가 해결되는 희한한 옷!!

너무 쉬운 NB 코르셋의 원리를 알면 통증의 원인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NB 코르셋은 내 몸을 멋진 틀(NB 코르셋 깁스에 넣어 자연 치유력을 이용한 과학과 지혜로 미와 건강을 만들어 내는 걸작품입니다.

**NB 코르셋의 특징**

- 24시간 입어도 갑갑하지 않고 편안함
- 입자마자 자세가 달라짐(교정)
- 입자마자 혈액순환이 달라짐(통증완화)
- 특수 공법으로 수축되지 않고 인체에 완벽한 섬유와 세계 특허 이중지퍼 사용. 한국 식약처에 의뢰기기로 등록된 교정 코르셋

허리교정을 위한 남성용도 있습니다.

쓰러진 토마토를 세우는 것은 버팀목입니다. 의사가 척추를 바르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깁스를 하지 않고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팀목(기립근)이 약해서 제대로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NB 코르셋은 늘어지지 않는 특수 천으로 깁스를 대신하고 코르셋 속의 10개의 버팀목이 약한 근육을 대신하여 골반과 척추와 경추를 바르게 교정해줍니다.

**NB 코르셋이 필요하신 분**

- >> 디스크환자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척추측만증 교통사고
- >> 각종 질환  
요실금 중풍 관절염 손발 저림 만성피로
- >> 체형교정  
골반 틀어진 분 허리 굽으신 분 O형다리 거북이목
- >> 미용효과  
목주름 많은 분 얼굴비대칭 복부비만 부정교합



**NB CORSET Tel: 323.316.6815**

'가적의 섬유'로 만든 '음이온 건강이불' 발이 불편한 분은 'NB메디칼 슈즈', 가장 강한 'SJP슈퍼 유산균건강제품 전문'

**무료 광고지참시 방문하신 모든분께**  
\*자세 사진 촬영 \*현미경 혈행 검사 \*체질 검사

# 북새통

##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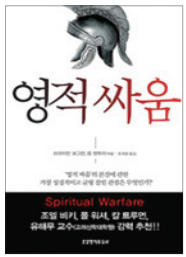


### 신간추천

#### 영적 싸움

브라이언 보그먼 외 | 생명의말씀사 | 216쪽

청교도의 전통을 계승한 젊은 개혁주의 목회자들이 신자들의 치열한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해석하고 삶에 적용할 것인지,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 대한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중심으로 쉽게 풀어내고 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영적 싸움과 현실을 성경에 근거해 올바르게 이해시킨 다음, 영적 싸움을 과소평가하거나 지나치게 과장하는 오류를 피한, 건전한 접근 방식을 알려준다.



#### 일상순례자

김기석 | 두란노 | 232쪽

동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한번쯤 멈춰 들어다 불일상의 장면들을 통해, 삶의 빛 되시는 근원으로 다가가게 한다. 저자는 신학과 문학을 자유롭게 오가며 자신만의 언어로 '길 위의 사람들'에게 묵상거리를 제공한다. 다른 출판사에서 절판된 책을 새롭게 꾸몄다. 다큐 사진 작가 이요셉 씨의 따뜻하고 깊이 있는 사진이 순례의 길을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여정으로 만들었다.



#### 좌충우돌 행복한 우리교회

로스 파슬리 | 예수전도단 | 252쪽

에배사역자인 저자는 교회가 '진짜 공동체'가 되려면, '가족'의 모습을 담아 내야 한다고 말한다. 영아부부터 장년부까지 체계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운영되며 교인 수가 늘어나는 소위 '무균질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하나로 어우러지며 부족한 대로 지지고 부고 울고 웃으며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 '가족에 속하는 일은 분명 번거로운 일이지만, 그 안에는 사랑이 있다.'



#### 동물 신학의 탐구

앤드류 린지 | 대장간 | 240쪽

같은 피조물인 동물의 권리도 신이 부여했으므로 신학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책. 관련 분야 독보적 연구자인 저자는, 지구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인간의 폭력과 학대에 시달리는 '동료 피조물'의 권리와 복지·해방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동물이 신학적 고찰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과 달리, 기독교 전통이 동물을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원천과 자원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 REVIEW

## 유기성 목사가 전하는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

### 요한일서 강해집 <우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는 2013년 10월부터 안식년 직전인 2014년 2월까지 주일 강단에서 선포된,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의 요한일서 강해집이다.

이 책은 유기성 목사가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이다.

저자는 신학교 3학년 시절 채플 시간,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요일 4:7)'는 구절을 읽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 정말 서럽게 울었다고 한다. 주위 친구들에게 미안할 정도로 눈물을 억제하기 힘들었다고 한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그 성경



유기성 목사

구절이 마치 주님의 탄식처럼 들렸고, 제 가슴 깊은 곳에 응어려져 있는 어려서부터 받은 교회에 대한 상처 같았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면,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만들 거야!' 하는 다짐이 생긴 것입니다. 목사가 되어 무엇을 할 것인지가 분명해진 것입니다. 제 마음에 있었던 쓴뿌리와 상처, 곧 싸우는 교회의 기억이 '천국 같은 사랑

과 기쁨이 충만한 교회'를 세우라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된 것입니다." 목회자 아들로 교회 안에서 자란 저자에게, 교회는 애증이 교차되는 곳이었다. 어린 그의 눈에 비친 교회 어른들은 늘 싸우는 분들처럼 보였고, 제일 무서운 분은 '장로님'이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재정 장로에게 돈을 받으러 장로님이 경영하시는 가게에 가면, 장로님은 무슨 일로 왔는지를 알면서도 문 밖에 세워 놓고 몇 시간씩 기다리게 했다. 이러한 상처들이 남아있었던 것이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  
유기성 | 두란노 | 300쪽

유 목사에게 요한일서는 그 신학교 채플 때부터 꼭 한 번 강해설교를 해 보고 싶었던 책 중 하나다.

드디어 강해하기로 결정한 후,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많이도 울었다.

신학생 때는 마음이 아파서 울었지만, 이번에는 우리의 연합에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또 사랑만 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에 대한 감격 때문에 울었다.

"사랑이 없어서 상처받았거나, 사랑에 목말라 사랑을 찾아 헤매는 성도들과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유 목사는 책을 통해 '당신은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하십니까?'라고 질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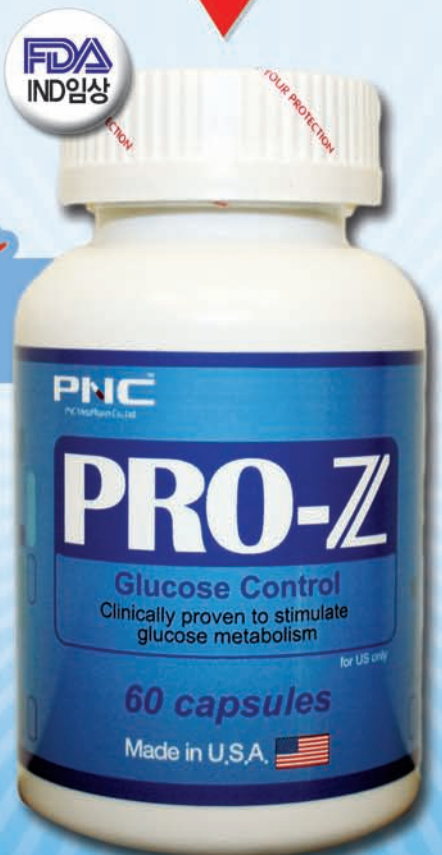
이대웅 기자

#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프로지(PRO-Z)를 대략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복용하시면 췌장에서 정상적인 인슐린 분비를 가능케 해 당뇨병에서 해방됩니다. 프로지(PRO-Z)는 근육세포 내에 당 대사를 거부하는 근본원인을 개선하여 혈당을 스스로 조절하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정부 연방 병원인 US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 동안 임상시험을 실시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 감소, 70% 이상 환자에서 혈당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현재 미국의 병원 2곳에서는 당뇨치료 보조제로 처방하고 있습니다.

- ✓ 한국 30만명 판매
- ✓ 미국 출시 기념 SALE

Special Price  
1병 \$76 3병 \$200 6병 \$372



####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40여 년간 당뇨 연구를 해온 대한민국 대표과학자로 한국인 최초로 미국연방 정부 지원을 받아 당뇨 신약개발을 위해 FDA 3차 임상을 진행하는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전, UCLA 의과대학 연구교수, 미 제향군인병원 수석연구원  
세계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 등재

####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췌장 베타 세포의 기능 복원을 개선하는데 PRO-Z가 해결해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 종류의 당뇨약이나 인슐린으로 혈당유지에 그쳤으나 PRO-Z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며,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 내 몸에서 스스로 혈당을 조절하게 하는 당뇨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솔루션입니다.

PRO-Z USA  
미국 공식 판매처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약속의 땅, 아이러브 아프리카〉 저자 이창욱 선교사

## “생명 다해, 아프리카에 생명의 우물 파 주겠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일지는 몰라도, 생명이 다할 때까지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 생명의 우물을 하나라도 더 파 주고 싶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렇게 일하다 아프리카 땅에 묻히는 게 제 기도제목입니다.”

〈약속의 땅, 아이 러브 아프리카〉를 쓴 이창욱 선교사의 꿈은 아프리카에 ‘생명의 우물’ 2만 개를 파 주는 것이다. 우물 파기를 위해 현장에서 직접 뛰어다니는 경험은 그들의 실제 필요를 발견하게 만들었고, 슬럼가 공용 화장실 건립과 고아 돌봄 사업으로 이어졌다.

그녀의 나이는 올해로 66세, 하지만 열정도 얼굴도 나이를 잊어버린 것 같다. “제가 1949년생입니다. 하지만 나이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이 나이에 일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이지요.”

이 선교사를 지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것은, 37년 전 사경(死境)을 헤매다 부여잡은 사명(使命)이었다. 철모르는 20대에 사업차 떠난 남편을 따라간 1977년, 그녀가 아프리카에서 만난 것은 말라리아였다.

어렸지만, 남편이 자신을 살려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 아버지도 너무 멀리 있었다. 무작정 신(神)을 찾으며 살려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했다. 뭔가 약속을 해야 할 것 같아, ‘목숨만 살려주시면,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게 서원기도였지요(웃음).”

주일학교를 다녀서 조금의 신앙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 것 같았다. ‘하나님, 살려줄 수 있습니까?’를 채 말하기 전에,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대사 부인이 찾아왔다. 일어설 수조차 없었는데, 갑자기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그 자리에서 짝 나는 것이다.

하지만 한참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다시 아프리카와 관계를 맺게 된 것이 12년 전인 2002년. 한국 방송 최초로 아프리카 대륙 3만km를 자동차로 종단하는 대장정에 참가하게 된 것.

이 선교사는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고, 대장정의 마지막 밤 허름한 골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네가 있어야 할 땅은 이곳이다. 너를 다시 살려준 고향 아프리카에 모든 것을 바치라.’

“제가 하나님께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뭘로 해야 하죠?’라고 여쭙봤지요. 그런데 ‘바로 이거구나!’ 하고 떠올랐습니다. 아프리카에서 50일 넘게 방송을 했으니, 이걸로 해야겠지요.”

이름도 ‘세계영상선교센터(World Multimedia Mission Center)’로 되어 주셨다고. 곧바로 아프리카 곳곳을 다니며 선교사들의 활동이나 NGO들의 구호활동을 촬영하고 제작해, 기독교 방송사들에게 무료로 제공했다.

아프리카 사람들과 함께하다 보니, ‘물’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 영적 생명수인 말씀도 중요하지만, 육적 생명수인 물도 이들에게 시급했던 것. 그래서 2007년 8월 케냐와 탄자니아 국경지대 마사이족 마을에 저수지 4곳을 파 줬다. 1년에 열흘 밖에 비가 오지 않는 그곳에서, 빗물을 모아 1년을 아껴 마셔야 하는 곳이었다. 흙탕물을 떠 마시며 기뻐하는 그곳 원주민들을 보고, 기도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은 사람인 원주민들에게 빗물을 받아 식수로 마시라고 저수지를 파 주고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흙탕물을 맛있게 떠 마시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울지 말고 우물을 파서



약속의 땅, 아이러브 아프리카 이창욱 | 넥서스CROSS | 308쪽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먹도록 해주면 되잖나?’ 곧바로 우물 2만 개라는 목표를 세우고 방송에 나가 호소했다.

“여러분, 우물 2만 개를 팔 텐데, 저는 떠드는 사람이고 파는 분들은 여러분이십니다. 저는 심부름꾼이고, 다리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수를 우리만 마실 게 아니라, 죽어가는 그들과 함께 마십시오!” 오해와 질시로 고통받을 때도 있었지만, 꾸준히 노력하니 사람들의 마음이 열렸고, 기업들의 후원도 이어졌다. 이제까지 파 우물이 50개나 된다.

‘아프리카 우물 파기’에 의구심을 갖고 바라보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이 선교사는 30여 명의 현지 상주팀과 힘을 합쳐 투명성과 철저한 사후관리로 신임을 얻고 있다. 기존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펌프 우물’이 아닌, 우물 1개당 1만 달러를 들여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방식에 수도꼭지까지 달아 ‘제너레이터 우물’을 설치하고 있다.

우물은 주로 ‘나라의 미래’가 자라는 초등학교 내에 만들어, 그들의 가정까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주민들이 학교에 관심을 갖게 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설치 이후 조그마한 소모품 부족들은 주민들이 직접 구매하도록 하여 자립심을 키우고, 이 선교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애프터서비스(A/S)를 통해 현지인들이 우물 관리에 대해 긴장을 놓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녀는 현지 아이들에게 ‘마지마마 리’로 불린다. 현지어로 마지는 물, 마마는 엄마, 리(Lee)는 그녀의 성(姓)이다. 이 선교사가 찾아가면, 아이들은 “아산테(고맙습니다)! 마지 마마 리”를 외치며 외락 안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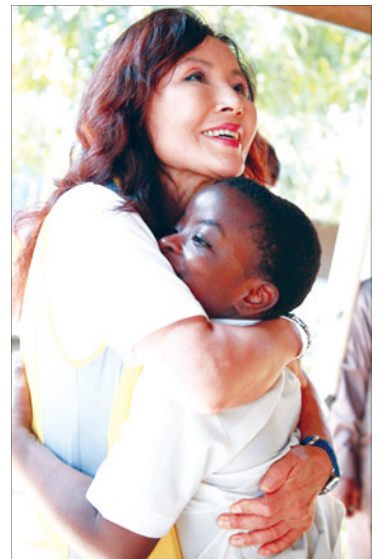
다. ‘우물 A/S’를 위해 갑자기 우물이 설치된 학교를 찾으면,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수십 명이 웃는 얼굴로 뛰어든다.

이 선교사는 전문적인 사역을 위해, 그리고 기업과 비기독교인들도 후원에 동참시키기 위해, 남들이 은퇴하는 60대 나이에 2011년 2월 NGO 아이러브아프리카를 설립했다. 아프리카 대륙을 전문적으로 돕는 ‘국제구호개발NGO’이다.

“하나님은 아이러브아프리카를 세우시고, 아프리카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제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육 간에 고통받는 아프리카인들을 가슴 절절히 지독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무도 보잘것없는 저를 30년 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부족하면, 30년이나 준비를 시키셨겠어요? 저는 계속 앞을 향해 이 길을 가야만 합니다.”

‘평신도 전문인선교사인 그는 ‘선교’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선교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땅끝은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국가적으로는 가장 가난한 제3



아프리카 아이와 안고 있는 이창욱 선교사 ©넥서스CROSS 제공

세계의 아프리카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보면, 정말 도와줘야 할 가난한 이들, 짐승 취급을 받고 사는 이들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땅끝’을 모두 품고자 합니다.” 이 선교사는 자신의 사역이 아닌, 하나님만을 증거하기 위해 책을 썼다고 한다. 그녀가 팔 우물은 아직 19,950개 남았다.

이대웅 기자



우물에서 물이 나오자 기뻐하는 아프리카 어린이들 ©넥서스CROSS 제공



우물은 주로 초등학교 내에 만들어 학교에 관심을 갖게 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넥서스CROSS 제공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다내병원의 3D 전신 스캔 종합검사는 신체내 투입이나 통증없이 신속정확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뇌, 심장, 혈관, 간, 위, 척추 등 전신의 건강 상태 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들을 미리 측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밀착이 경험하지 못한 전신기능의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생약치료** 20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다내병원** 다내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621 S. 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 T. 213.487.0691

**DK Health Insurance, Inc.**

**DK HEALTH INSURANCE, INC.**

## 건강보험 전문회사 DK 건강보험(구 하나건강보험)이

### 65세 이상의 **레디케어 건강보험** 과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을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강 보험 플랜을 취급합니다)

**213-500-4563**  
**ID:DKHEALTH**

**오바마 건강보험 (Covered CA)**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에이전트로 부터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희 DK 건강보험에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카카오 계정을 통한 지속적인 서비스로 최고의 고객만족을 제공 합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현재의 소득이 10% 이상 증가하거나 10% 이하 보험료가 줄었습니까? 가족구성원의 수가 변화하였습니까? 현재의 건강보험을 2015년에도 유지 하고 싶습니까? 저희 DK 건강보험에 연락 주세요, 혹은 카카오계정을 이용 하시면 더욱 편리 합니다.

1. 손님 의 요구에 따라 각 카운티와 계약된 모든 건강보험을 보험료와 보험혜택을 꼼꼼히 비교 분석하여 드립니다.
2. 정부의 건강 보험 플랜이기 때문에 메디칼 그리고 커버드 캘리포니아 플랜과의 소득에 따른 연관성이 있습니다. 플랜 가입후 메디칼에 대한 고객 서비스 그리고 각 헬스 플랜에 따른 고객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처방약이 보장되는지 그리고 의료 외 혜택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통해 항상 여러분곁에 있습니다. 카카오 계정 DKHEALTH 나 213-500-4563 을 기억 하십시오.)

**메디칼 메디케어 특별 필요 플랜도 도와드립니다**

1. 메디케어만 가지고 있는 분들의 건강보험을 분석하고 메디케어 수혜자에게 가장 맞는 건강 보험을 비교 분석하여 드립니다. (처방약 비용 분석, 처방약 보장 분석, 치과 혜택 분석, 안경테 렌즈, 보청기, 헬스클럽등의 배니핏이 최대한 보장되는 플랜을 비교 분석하여 드립니다.)
2. 당뇨질환이나 심장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메디케어 건강 보험
3. 신장투석을 하고 있습니까? 신장투석을 하거나 신장이식을 하신 분들을 위한 건강 보험 등을 분석 검토하여 드리겠습니다.

**메디칼과 메디케어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들의 건강보험**

메디칼과 메디케어의 통합에 따른 여러가지 건강 보험중에서 고객에게 가장 맞는 건강 보험을 고객의 요구에 따라 맞춤 서비스를 하여 드리겠습니다. DK 건강보험은 메디케어의 신청 메디칼의 신청 엑스트라 헬스 플랜의 신청 그리고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의 신청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카카오 톡 서비스를(카카오 계정 DKHEALTH 혹은 213-500-4563을 저장하세요) 제공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카카오 톡을 통해 건강보험의 궁금한 점을 질문하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에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신분이나 세금을 내신 기록에 따른 보험료가 달라 질 수 있지만 최대한 저렴하며 보험가입자의 혜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0세부터 65세 까지의 모든 건강 보험을 도와드립니다.**  
**65세 이상의 건강보험도 도와드립니다.**

**DK HEALTH INSURANCE, INC.**  
(구, 하나건강보험)

문의 전화 **1-855-386-3088, 1-213-500-4563**

LA 본사 주소: 520 S VIRGIL AVE #204 \*샌 디에고, 오렌지 카운티, 다이아몬드 비에도 오피스가 있습니다.

**DK Health Insurance, Inc.**  
LIC #: 0146629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중고차 황제 김기형

##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는 UCLA의 대학 박사 40여년간 연구 개발한 PRO-Z는 미국FDA에 치료 약으로 인정되어 주성분인 아연과 크롬으로 의약품에서 획기적인 연구개발로 임상평가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재향군인 병원에서 임상실험 결과 최상의 6개월복용시제에 탁월한 효과로 개선됨을 확인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해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췌장베타세포의 기능 복원을 개선시키는 데 PRO-Z가 해결해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명의 당뇨약이나 인슐린으로 혈당 유지를 하는데 그쳤으나 PRO-Z는 췌장에 인슐린 분비를 확실하게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제제로 세계 최초로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고 있는 당뇨 개선제입니다.

### 지긋지긋한 당뇨병 탈출

당뇨병을 앓고 있던 당뇨병이 이제는 치료가 됩니다. 새로운 당뇨 개선제 PRO-Z를 6개월만 복용하시면 지긋지긋한 당뇨병에서 해방되어 정상인과 같은 건강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줍니다.

1병 \$76  
3병 \$200  
6병 \$372

PRO-Z USA 미국 판매처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타주 대리점 모집  
당뇨병 가능 개선제 PRO-Z

##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090)인 제이 송 시니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칼라레이저 프린터 리스(임대) \$49.99/month 선착순 5명

**\$69.99** \$149.99 **SAVE: \$80.00 (53%)**

MULTIFUNCTION LASER PRINTER 레이저 프린터(칼라흑백) Blow Out Sale!!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SAMSUNG SCX SERIES SCX-3405W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고 판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저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중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딜러십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가 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션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cilff Ave. Lancaster, CA 93535

**K.T. 택배 T. 213-365-8588**

말도 안되는 가격 \$ 6.99 초고속 픽업 & 배송!!

전화 한통화로 당일무료 픽업!

무료포장 (박스, 충격흡수제 무료)

최저 가격!! 인터넷 사업자 대박우대

소량화물 4개중 1개 공짜!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는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KO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온돌마루**

UL마크 인증제품 사용 NRTL(미국 전기 안전 규격제품).

획기적인 절전제품/ 전자파제로

안방 아랫목, 거실, 기도실, 유아방, 잠실방 설치중

피코 건축자재 (피코+카탈리나) 213)256-488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튜업정비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신고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전도와 신고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쇼스피드 다이어트**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개월 \$60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1주분 다이어트 약 \$60 부터...

하머니크림 (습윤크림)

- 임신 중 튜살 방지
- 건선으로 인한 붉은 주름(얼굴, 목)
- 트고 갈라진 피부 보습(발 뒷꿈치)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자궁축, 하혈)
- 우울증
- 관절염
- 원형탈모
- 구연산 캡슐

배배는 속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오바마 케어 포함) 영어: 213.380.6868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win HYUNDAI CARSON** 원현대 칼슨 HYUNDAI

**이번달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이벤트** "2015년형 뉴 제네시스 입하"

Genesis 2015 ALL IN STOCK @ \$36,120

Genesis 2014 3.8 ALL IN STOCK @ \$36,120 Lease for \$249 PLUS TAX @ 36 MONTHS

Equus 2014 signature ALL IN STOCK @ \$61,920 Lease for \$399 PLUS TAX @ 36 MONTHS

Alex Shin 한인 Manager 2201 E. 223rd St., Carson, CA 90810 ashin@winhyundaicarson.com Phon: 310.830.5100 (Ext 653) Cell : 562.900.2399 Kakao ID: alexshin878

www.winhyundaicarson.com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브로커 환영**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2201 East 223rd St. Carson 90810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All advertised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any electronic filing charge, and dealer document processing charge, and any emission testing charge. All vehicles are at Carson location. Offers available through Jan. 27, 2014

# “다문화의 핵심은 ‘영혼 구원’, 이 마음 있으면 인종과 세대 뛰어넘어”

## 파사데나장로교회 최호년 담임목사 인터뷰

지난달 19일 파사데나장로교회 창립 13주년 기념예배를 드린 담임 목사인 최호년 목사는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교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해산하는 수고”라는 말로 말씀을 열었다. 바울은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양육하는 과정을 ‘해산하는 고통’에 비유했다. 이 고통은 끔찍하고, 야만적이며, 무자비하며, 잔인하다. 모든 생명은 모체에 살을 뚫는 아픔을 안겨주고 이 세상에 나왔다. 바울에 따르면, 영적인 생명의 탄생도 이와 다르지 않다. 우리 가운데 모체에 아무런 해를 입히지 않고 태어난 존재가 없듯, 해산의 수고 없이 태어난 영적인 생명도 없다.

최 목사는 이 말씀을 전하며 “다시”에 방점을 찍었다. ‘자유의 복음’이라 불리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주의가 스며들어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가르침을 가려버린 데에 울분을 토하며 이들을 ‘다시’ 복음으로 굳건히 세워야함을 역설했다. 지난 8월 17일 파사데나장로교회로 부임해 온 신참내기 담임목사인 최 목사가 이 교회를 이끌기 시작하며 꺼낸 화두도 바로 “다시”였다.

### -파사데나장로교회로 부임을 결정한 이유는?

저는 아메리카장로교(PCUSA,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소속 목사이기 때문에 다소 진보적인 미국장로교(PCUSA, Presbyterian Church USA)로 옮기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다. PCUSA는 포용성이 강하다. 그러한 면에서 따뜻함을 많이 느꼈다. 또 개방성이 강하면서도 보수적인 교회나 목사님도 많이 계신다. 보수적 교단 출신이라도 문제 될 게 없었다.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 하심이지만 특별히 이 교회에 비전을 둔 것은 이전 교회에서 중고등부와 EM사역을 했기 때문이다.

### -자기 소개를 해 달라.

시카고에서 11년 정도 있었다. 트리니티복음주의신학교에서 신약학 박사과정을 밟으며 시카고한인교회를 섬겼다. 중고등부사역부터 시작해 유년부, 초등부를 거쳐 장년부를 섬기며 수석부목사로 시무했다. 시카고한인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다. 특별히 북한사역을 하고 조선족 교회를 세웠다. 이를 통해 교회의 본질을 배웠다. 그전에는 평신도 복음 전도 훈련인 ‘전도

폭발’ 운동을 일으킨 제임스 케네디(D. James Kennedy) 목사가 설립한 플로리다 주 나스신학교(Knox Theological Seminary)에서 목회학 석사과정을 밟았다.

92년도 군대에서 부활주일예배를 받았다. 저를 위해 늘 기도해 준 후배가 있었는데 그 후배를 통해 전도됐다. 98년도에 미국에 온 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았다. 교비 장학생으로 미국에 왔으나 몸이 마비돼 물도 마시기 힘들고 눈조차 감을 수 없어 공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건강을 회복한 후 한국으로 돌아가 할지, 이곳에 계속 머물어야 할지 갈등이 있었다.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했고, 한 학기 후 공부를 중단하고 한 시간 떨어진 곳에 있는 나스 신학교에 입학했다. 아프고 나서 한 차례 사건이 있었다. 결혼 후 미국으로 건너와 신혼살림을 차렸는데 집에 도둑을 들었다. 그 일을 계기로 세상적인 꿈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결심했다.

### -파사데나장로교회는 다문화교회로서 다른 한인교회와 다른 어떤 장점과 어려운 점이 있는가?

여러 회중이 함께 하니 서로를 많이 배울 수 있다. 예를 들면 파사데나장로교회는 140년이 됐기 때문에 깊은 믿음의 뿌리가 있다. 이 교회를 지켜온 분들이 지닌 중요한 정신 중 하나는 ‘지역을 섬기려는 마음’이다. 지역 공동체를 섬기는 마음이 강하다. 한 예로, 수요일 정오에 매주 콘서트를 열어 흠리스들을 위한 바비큐 파티를 열거나 흠리스 센터를 찾아가 음식을 대접하고 양말을 나눠주는 등 흠리스를 섬긴다.

한인교회는 13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한인회중만 생각하고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기 쉬운데 그들을 통해 지역사회 섬김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다. 이외에 히스패닉 회중도 3년, 일본 회중도 2-3년 됐는데 잘 성장하고 있다.

어려운 점이라면, 다른 문화와 언어를 낯설어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점이다. 다른 언어, 문화권 사람들과 계속 소통해야 하고 함께 해 나가야 하는데 이런 새로운 구조에 대해 낯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 -다문화 비전을 좀 더 구체화한다면?

저도 성경적 근거와 답을 찾고 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이 보여주듯 성경적 근거가 필요하다. 성도들에게 ‘다문화’라고 말하면 의미가 잘 다가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교회를 주셨는데 큰 그림보다는 지체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고 도와주며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부터 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선교할 수 있으며 어떻게 다른 나라까지 가서 전도할 수 있겠나? 멀리 멕시코까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위의 흠리스부터 찾아가며 섬김을 실천해야 한다. 다문화의 핵심은 ‘영혼구원’이다. 그 마음만 있으면 인종, 세대를 뛰어넘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듯 인종과 나이를 불문하고 영혼을 섬기는 마음에서 선교가 시작된다.

### -예배는 어떻게 드리나?

각자 독립적으로 드린다. 영어회중과 히스패닉회중은 전통적 예배를 드리며 한인회중은 좀 더 현대적인 예배를 드린다. 한인예배는 창립기념일 같은 절기에는 자녀들과 함께 연합으로 드리려 한다. 자녀들이 부모들과 함께 드릴 때 받게 되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 ‘하나됨’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

특별한 점이 있다면 매달 각 회중 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거행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우리 중심은 그리스도임을 되새기며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 전체 회중 합동예배는 1년에 2-3회 드리며, 다른 회중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도 한다. 최근에 미국회중, 일본회중 예배에서 설교하기도 했다.

### -목회자 문제로 상처 받은 교인들을 어떻게 치유할 계획인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일년 넘게 담임목사 자리가 공석이어서 교인들이 많이 지쳤고 실망과 좌절, 낙심이 매우 깊었다. 목회자로서 말씀과 본질을 중시하면서 위로와 격려, 소망을 주려한다. 순모임에 동참해 그들의 기도제목, 가정사, 힘들었던 일에 관해 들으며 관계를 쌓아가고 있다.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듣는 목회를 하려 한다.

앞으로는 일대일 양육이나 심방을 통해 관계를 형성해 갈 계획이다. 또 리더 등 교회 직분자들과 함



최호년 목사

계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양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어떤 이들이 함께 하나?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EM, 장년부, 찬양 담당 사역자들이 있다. 우리 교회에 젊은 층이 많아 2세 교육에 관심이 많다. 교역자들과 함께 ‘어떻게 복음을 자녀들에게 전해야 하나’를 항상 우선으로 고민한다.

특별히 목회자 가정이 본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해 저희 가족은 흠스쿨링을 통해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다. 흠스쿨링은, 나스신학교를 다닐 때 주위의 교수님과 가정의 자녀들이 참 반듯하고 순수했는데 그분들께 영향을 받았다. 목회사역과 교수사역으로 바쁘면서도 가정을 중시하며 자녀와의 시간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자녀를 낳으면 흠스쿨링을 하기로 결정했고, 시카고로 와서 자녀를 낳은 후 흠스쿨링을 시작했다.

### -파사데나장로교회에 관한 소망과 비전은?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사람이 안 보일 때가 있다. 일은 잘 됐는데 정작 사람은 다 떠나고 없을 때가 있다. 부교역자로 섬기며 ‘사역에만

집중하면 나중에 영혼을 잃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역보다 중요한 게 생명이다. 일을 이루기 위해 생명을 돌보지 않거나 그 영혼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 결국 그들 영혼이 죽는다. 일(Doing)과 존재(Being)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 행사나 프로그램 등 기계화된 방식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하면, 그게 없어질 경우 신앙이 무너지고 만다. 그보다는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바로 서서 매일의 삶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도록 돕는 게 중요하다.

### -목회에 있어 관계를 중시하는 것 같다.

신앙생활은 관계적 요소가 많다.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섬기는 지를 교회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부모가 삶을 통해 자녀가 신앙을 배우고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스며들듯 자연스럽게 가르치고 싶다.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삶으로 배울 수 있어야 한다.

### -어떤 목회자가 되고 싶은가?

한 길을 갔으면 좋겠다. 이 소명, 사명, 이 한 길만 가도 좋겠다. 남편, 아빠의 자리를 잘 지켰으면 좋겠다. 목회의 길, 그 한 길만 가고 싶다. 한 주디 기자

**오바마케어 벌금 면제 기관**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고후 9:12)

**전국민의료보험시대, 어떻게 대비하시겠습니까?**

기독교의료상조회는,

- IRS Section 501(c)(3)에 의거한 비영리 기관인 로고스 선교회 소속이며
- 오바마케어 벌금 면제 기관인 Health Care Sharing Ministry로서,
-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의료비 나눔 사역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북부지역:** 엘에이 카운티, 샌버나디노 카운티, 벤추라 카운티 산타바버라 카운티

**교회 및 단체, 소그룹 모임 세미나 접수받습니다!**

의료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한인들을 위해 “오바마케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자세하게 알려 드립니다.

**남가주 북부지부** | **213.249.1161** | **기독일보 LA** | **949.864.9162**  
 지부장: 김경호 목사 | **shelby.moon65@gmail.com** | **cmm6791027@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 CMM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보험회사가 아니며, 비영리 Health Care Sharing Ministry(의료비 분담 사역)입니다.

**기독교의료상조회** (본부) 5235 N. Elston Ave., Chicago, IL 60630 | 무료전화 888-777-8226 | [www.cmmlogos.org](http://www.cmmlogos.org) | [info@cmmlogos.org](mailto:info@cmmlogos.org)

미국 최대 한인 현대 딜러

**PH**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쏘나타를 만나는 특별한 기회! 지금 푸엔테 힐스 현대에서 확인하세요!

2015  
SONATA  
SE STANDARD

**\$888** +TAX  
**36** Mon.

MSRP: \$22,085. \$3,499 DUE AT LEASE SIGNING,  
12,000 MILES PER YEAR, + \$500 VALUED OWNER COUPON  
+ \$500 MILITARY REBATE, + \$400 COLLEGE GRAD REBATE.



2014  
ELANTRA LIMITED  
TECHNOLOGY PACKAGE

**\$688** +TAX  
**36** Mon.

MSRP: \$25,510. \$6,499 DUE AT LEASE SIGNING,  
12,000 MILES PER YEAR, \$750 LEASE CASH,  
\$500 VALUED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2015  
GENESIS SEDAN 3.8L  
SIGNATURE PKG

**\$3888** +TAX  
**36** Mon.

MSRP: \$43,105 \$5,999 DUE AT LEASE SIGNING,  
12,000 MILES PER YEAR, \$500 LEASE CASH,  
\$1000 VALUED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HYUNDAI**

**1-888-850-2077**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찰리 정  
626.513.4981



스티브 장  
626.513.4006



저스틴 길  
626.513.4580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www.phhyundai.com

